

〈Work+Life Balance〉

묻지 말고 '워라밸'? 특수업종엔 "워프헬"

'근로시간 단축'의 그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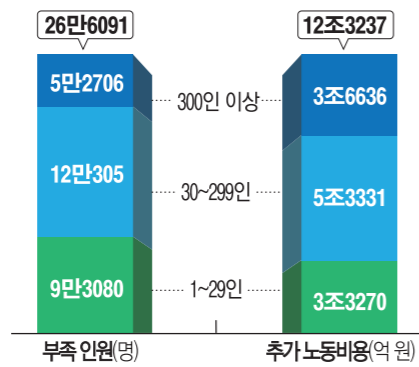
대기업, 52시간 근무 시범운영 R&D·계절가전 생산업종 등은 제도 일괄 적용엔 생산성 타격 산업별 특성 따른 보완책 시급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9일 제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각 부서장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라'는 지침을 내리고, 비(非)업무시간에 대한 체크 기능을 강화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LG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2월부터 HE(휴먼테이먼트)사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업본부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사업부별 근무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전 계열사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인 신세계그룹은 1월 법정 근로시간(40시간)보다 5시간 적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전격 도입했다.

무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들 기업은 반도체 호황과 가전 제품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호황의 뒷면에 '초과 근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소형 스마트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부서는 초과 근무를 해왔다. 반도체 주문이 밀리지 않도록 생산라인은 주말에도 특근을 했다. 이 같은 노력이 최대 실적을 이끈 것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연구원은 "결국 자료를 집으로 들고가서 잔여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무 특성상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리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일괄 적용할 경우 자칫 타이밍을 놓쳐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에어컨 등 계절가전 제품 생산 현장은 최소 6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성수기 등

〈Work+Productivity(생산성) Hell〉

특정 기간 일이 몰리는 제조 현장은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해외마케팅·영업·대의 담당 부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부서는 특성상 업무시간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힘들다. 건설업체들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다른 시기에 업무를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들은 시범 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파악한 후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별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연민 기자 yerin2837@

러시아 푸틴, 24년 최장집권 성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들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모스크바 AP-연합뉴스

'하얀 석유' 코발트... 나올 구멍이 없다

2차전지 주원료로 수요·가격↑ 공급부족 사태엔 관련산업 휘청

올해 전기차, 스마트폰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의존도는 93.4%(금속광물 99.6%)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19일 광물자원공사와 세계 코발트 수요 전망에 따르면 코발트 수요는 2025년 26만4000톤으로 2016년 대비 수요가 2.4배 증가할 전망이다. 수요 대비 제한적 공급으로 인해 올해부터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함께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광물인 코발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콩고에서 생산하며 중국 기업들의 콩고 광산 인수 등으로 공급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코발트 수입은 2016년 기준 1만3000톤으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2.3%씩 증가했다. 현재 코발트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58%), 벨기에(19%), 핀란드(11%) 등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코발트 가격은 2016년 10월 2만5655달러에서 2017년 8월 5만8214달러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2차전지의 주원료인 코발트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시 국가 경쟁력 하락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공업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가 차원의 해외자원 개발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민간의 광물 단기 수급 해소,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시 광산 사업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금타노조 만나는 이동걸 '회생 리더십' 시험대

오늘 광주공장 찾아 첫 면담... 법정관리 막판 타결 촉박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9일 금호타이어 노조를 만나 중국 더블스타로의 경영영역 이전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말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정관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GM, 대우건설 매각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이번 금호타이어 노조와의 협상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찾아 노조 집행부를 면담한다. 오후 2시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와의 협의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은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매각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현재 자율협약 체제나 워크아웃으로는 금호타이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도 이날 말을 매각 협상 시한으로 보고 해외자본 유치와 자구안에 대한 노조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채권단의 행보처럼 다시 유야무야 채권 만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스스로 모든 명분을 차단한 셈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돌입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이 회장은 노조를 돌려세우기 위한 여론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3면에 계속

정다운 기자 gamja@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내일부터 3일간 對국민 설명

청와대가 19일 대통령개헌안을 20일부터 3일간 공개하고 26일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여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합의하기가 힘든 만큼 국회 개헌안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 비서관은 "애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준수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진 비서관은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인드 로이드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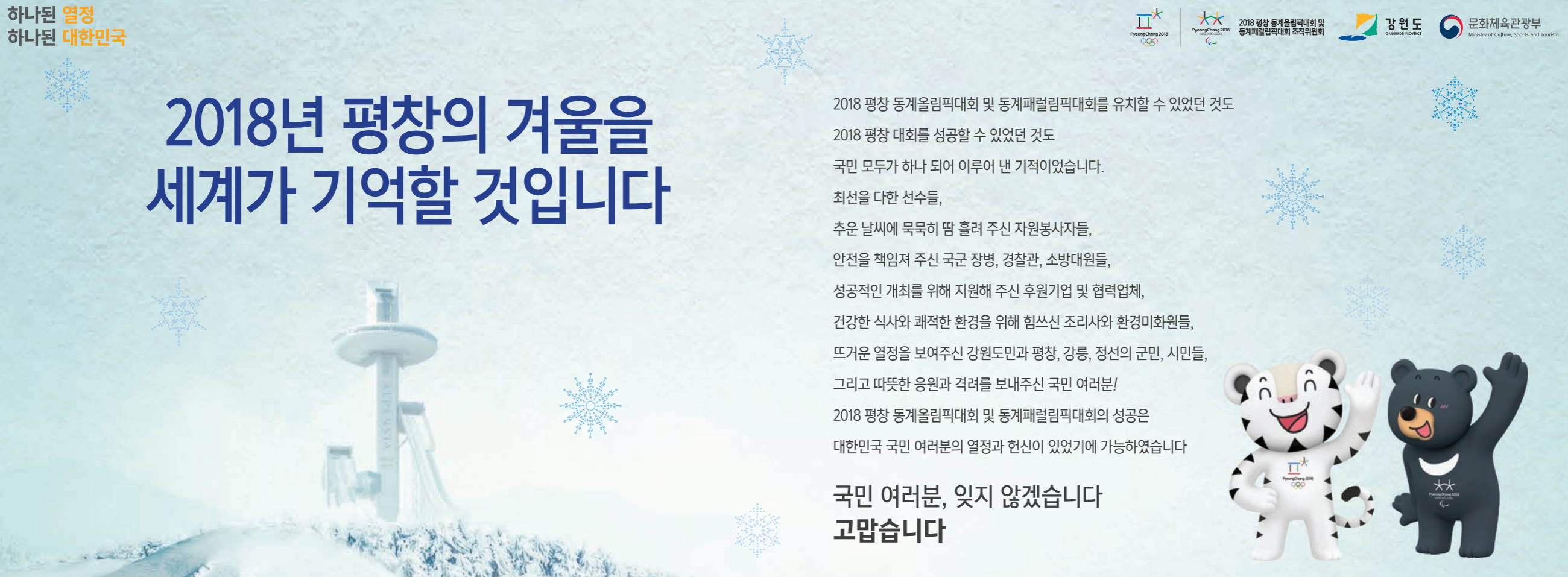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평창의 겨울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2018 평창 대회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추운 날씨에 묵묵히 땀 흘려 주신 자원봉사자들,
안전을 책임져 주신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대원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해 주신 후원기업 및 협력업체,
건강한 식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쓰신 조리사와 환경미화원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강원도민과 평창, 강릉, 정선의 군민, 시민들,
그리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춘반란 ⑫ 박경준 아이언미트 대표



박경준 아이언미트 대표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이란 기자 photoeran@

“고기왕국을 이루는 게 꿈이에요.” 박경준(34) 아이언미트 대표는 “닭고기 하면 특정 기업이 생각나는 것처럼 고기 하면 아이언미트가 떠오를 만큼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종합 고기 유통기업으로 변화 중 = 박 대표는 “유통부문을 대폭 확장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기 유통 시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로 알

“철든놈” ‘숙달돼지’ 등 고기구가 프랜차이즈 이름 알려 “사업가에 위기는 고통이지만 위기 없다면 성장도 없어”

려져 있지만, 향후 고기 사육부터 유통, 가공, 판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사업화할 계획이다. 축산업자와 제휴해 안정적으로 육류를 공급받고, 가공 시설에서 만들어진 육류를 보유 중인 프랜차이즈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유통부문을 확장해 고기 판매를 늘리고, 온라인 판매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조만간 고기 전문 유통 사이트 ‘탐육’ 서비스를 시작한다. 품질 관리는 고기 맛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산하 연구소를 통해 이뤄진다. 박 대표는 “축산부터 최종 소비자 판매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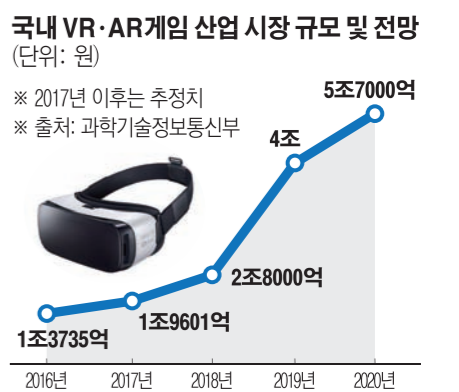
하는 개념”이라며 “유통부문을 성장시켜 코스닥 상장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과 철제 구이 전문가 = 박경준 대표는 ‘철든놈’이라는 고기 구이 프랜차이즈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철든놈의 해외 지점도 준비 중이다. 철든놈 이후 숙성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숙달돼지’를 2016년 11월 내놓았다. 철든놈으로 익힌 맛에 대한 감각과 프랜차이즈 노

공에 대한 탐욕을 빚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 = 박 대표는 사업 이외의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적성검사에서도 사업가 성향이 두드러지게 발달된 유형이었다. 박 대표는 2004년 국내에서 많은 상상자를 냈던 태풍 ‘매미’를 겪으며, 침수 방지 시설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그는 정부 기관과 대형 건설사에 특허 시설을 납품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건설사 임원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버겁기도 했고, 흥미도 끌지 못했다. 박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며 “젊음이 메리트인 사업에 대해 계속 연구했다”고 말했다. 침수 방지 시설을 혼자 개발하면서 익힌 노하우로 당시 유행하던 연기 안 나는 구이기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박 대표가 만든 구이기는 고기 측면에서 열을 가해 기름기를 짝 빼는 것이 특징으로, 특허 출원 중이다. 스무 살에 사업을 시작한 박 대표는 14년간 사업을 해 왔지만 아직도 사업하기가 어렵다. 박 대표는 “사업가에게 위기는 고통이지만 위기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VR·AR’ 힘 실는 게임업계

드래곤플라이 ‘스페셜포스 VR’·엠게임 ‘열혈강호 VR’ 등 선배 국내 VR·AR 게임 시장 규모 지난해 2000억서 2020년 1兆 전망

국내 중견 게임업체들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게임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VR하드웨어 기기 업체까지 보급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매년 30~40%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드래곤플라이, 엠게임 등 국내 중견 게임업체들이 VR·AR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VR산업협회 등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VR·AR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기 시장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1조 9600억 원에서 2020년 5조 7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래곤플라이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르셀로나 2018(MWC 2018)’에서 무선 VR 워킹 어트랙션 ‘스페셜포스 VR’ 체험존을 운영했다. 게임 PC 영상을 스마트폰에 직접 전송하는 기술과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술을 접목해 아지러움증을 최소화하고 활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엠게임은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VR 대전 게임 ‘열혈강호 액션 VR’, 네시삼십삼분은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IP를 활용한 AR 모바일 게임 ‘고스트버스터즈 월드’를 개발하고 있다. 하드웨어 업체들도 VR게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드웨어 기기 업체인



오콜러스, HTC, 소니 등은 VR기기 제품의 소형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고가의 장비 탓에 VR게임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가격이 저렴해져 기기 보급화가 이뤄지면 관련 산업이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VR·AR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업체들이 저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을 선점해 VR·AR 산업을 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금감원, ‘한국GM 감사인’ 딜로이트안진 들여다본다

한국GM 非협조에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회계장부 파악 나서

금융감독원이 한국GM의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의 품질관리 감리에 착수했다. 한국GM 감리에 앞선 사전 단계로 해석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한국GM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딜로이트안진의 정기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로 시기를 앞당겼다. 딜로이트안진은 2004년부터 한국GM의 감사를 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딜로

이트안진 감리에서는 한국GM의 과거 8년치 회계 자료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딜로이트안진 감리에 나서는 것은 한국GM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문이다. 금감원은 한국GM의 임의 협조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회계 현황을 살폈다. 그러나 한국GM이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을 통해 한국GM의 회계 장부를 파악하고 있다. 감리의 초점은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6년 기준 93.1%로 같은 기간 르노삼성자동차의 80.1% 대비 13%포인트 높다. 금감원은 한국GM의 매출액 감소 이외에 매출원가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아직 한국GM에 대한 감리 계획은 없다. 금감원이 비상장사 감리에 나서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열리는 증권위에 한국GM 감리 안건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초 실시한 한국GM 관계자들과의 면담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감리를 통해 역분식 회계 의혹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정다운 기자 gamja@

데이터 뉴스 Data News

올들어 코스피지수 상승률 1%...G20 국가 중 7번째

국가	지수	등락률
브라질	7만6402~8만4928	↑11.2%
아르헨티나	3만165~3만2707	↑8.8%
러시아	1154~1247	↑8.0%
사우디아라비아	7226~7744	↑7.2%
이탈리아	2만1853~2만2713	↑3.9%
터키	11만5333~11만7201	↑1.6%
한국	2467~2492	↑1.0%
미국	2만24719~2만24873	↑0.6%
중국	3307~3291	↓0.5%
인도네시아	6355~6321	↓0.5%

(단위: 포인트)
 ※ 지난해 말 증가→3월 15일 증가

올해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G20 국가 대표지수 중 7위를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증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492포인트로, 지난해 말 대비 1.0%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G20 국가 대표지수 중 브라질(11.2%), 아르헨티나(8.8%), 러시아(8.0%), 사우디아라비아(7.2%), 이탈리아(3.9%), 터키(1.6%)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미국은 0.6% 상승해 8위를 기록했다.

반면 영국(-7.1%), 독일(-4.4%), 일본(-4.2%), 인도(-1.1%), 중국(-0.5%) 등은 지난해 말보다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 대비 증가 수준은 터키가 97.0%로 가장 높았고, 브라질이 96.9%로 2위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95.9%로 3위에 올라 지난해 세계적인 증시 조정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1989년 1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일본(56.0%)과 중국(54.0%), 러시아(50.1%), 이탈리아(45.3%), 사우디아라비아(37.6%)가 16~20번째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민호 기자 minoris3032@

굿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다시, 봄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

아동 1000명 중 275명이 학대를 경험하지만 발견되는 아이는 단 1명... 274명의 아이들은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국민감시단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는 굿네이버스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국민 아동학대예방캠페인입니다.

굿네이버스

경찰청
www.police.go.kr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중더블스타 회장 解明에도... 꺼지지 않는 '먹튀' 논란 불씨

이동걸, 노조 설득 위해 광주로
차이용선 회장 "기술 먹튀 없을 것"
구체적 근거 밝히지 않아 논란 예상
노조-채권단 '해외매각' 입장차 여전
오늘 면담 합의점 찾기 쉽지 않을 것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3차 매각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근본적으로 대립각의 원인인 '먹튀' 논란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언론과 더블스타와의 인터뷰를 주선하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노조는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노리는 '더블스타'의 차이용선 회장은 최근 국내 매체와 인터뷰에서 5년 전만 해도 부진했던 더블스타가 중국 내 스마트 제조 선도기업이자 타이어 브랜드 가치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금호타이어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인수전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다른 3개 국유기업의 총자산만 15조 원에 이른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자금력 우려를 일축했다.

더블스타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룬 3개 국유기업은 △칭다오귀신(國信)그룹 △칭다오청투(城投)그룹 △칭다오강(港)그룹이며 컨소시엄 명은 심웨이(星微)코리아다. 차이 회장은 "칭다오시가 타이어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더블스타를 더 강하게 키워내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타이어 상장사 중 임직원 회사 주식을 보유(배당률 1~3%)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금호타이어를 둘러싼 우려와 노조 반발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 회장은 반발이 극심한 노조와 "필요하면 만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아울러 차이 회장은 '먹튀' 가능성에 대해 "먹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장기적인 국내 공장 활용 및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장 스마트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감소 등에 대한 대책도 설명하지 않았다. 인수 후 2대 주주로서 산업은행이 먹튀를 견제할 만한 장치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차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실제 없는 '먹튀 방지' 약속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금호타이어 노조와 만난다. 이 회장은 노조와 만나 △해외 매각에 대한 노조 동의 △노조가 반대하면 법정관리 불가 피 등 기존 채권단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끝내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를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다. 채권단은 해외 매각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청산가치(1조 원)가 존속가치(4600억 원)의 2배가 넘는다는 게 채권단 분석이다.

노조는 이 회장과 면담에 대해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 측은 "금호타이어는 874개 특허와 해외 영업망을 가진 세계 타이어 업계 14위 기업으로 광주 전남 지역 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GM 군산공장과 쌍용차 사태 등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특히 기술만 중국 업체에 넘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너의 무분별한 해외 공장 증설 등 판단 착오가 금호타이어의 경영부실로 이어진 만큼 현재 상황은 경영진 및 채권단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시험대 오른 이동걸 産銀 회장 리더십
 ▶1면에서 받음

취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깜짝 기자회견을 열거나 더블스타와 국내 언론의 인터뷰까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날 노조와의 면담 자체는 큰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 노조에 제시할 다른 카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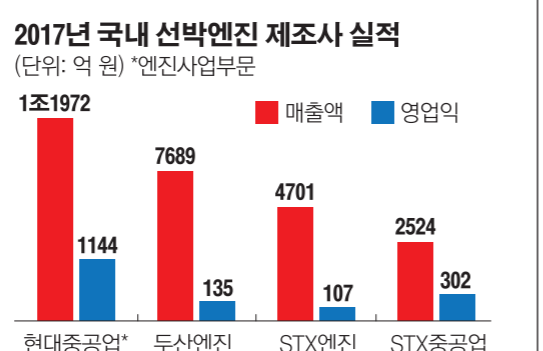
입장과 변한 것은 없고 노조와 최대한 대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의 입장은 아직 강경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날(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채권단과의 줄다리기 상황을 '치킨게임'이라고 표현했다. 법정관리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먼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4일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품에 안긴 선박 엔진 제조사들 부활 시동 걸릴까?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국내 엔진제조사들의 주인이 모두 사모펀드로 바뀌었다. 전방산업의 더딘 회복으로 수요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구조 재편에 실패한 엔진회사들이 각각 생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IB업계에 따르면 STX중공업의 매각을 주관하는 삼정KPMG는 파인트리자산운용과 글로벌세아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사모펀드인 파인트리자산운용이 970억 원을 들여 STX중공업의 엔진기자재 사업부문을 인수할 예정이다. 의류 OEM(주문자위탁생산)기업인 글로벌



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유양코가 STX엔진을 인수한 후 이어진 두산엔진과 STX중공업 매각에는 인수의향자가 몇 군데 등장하지 않는 등 매각이 힘들어졌다.

국내 엔진산업은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두산엔진, STX엔진, STX중공업이 경쟁하는 체제다. 이중 자체 브랜드인 '힘센'을 보유한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덴마크 MAN사와 스위스 WinGD 등 외국 라이선스를 빌려 엔진을 제조하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업황이 회복되고는

STX엔진·두산엔진 매각 이어 STX重도 파인트리자산운용에 엔진기자재 사업부문 매각 예정

세아는 플랜트부문만 160억 원에 인수한다.

지난해 9월 STX엔진은 연합자산관리(유양코)로 인수가 확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두산엔진은 13일 사모펀드(PEF) 연합체인 '소시어스 웰투시 컨소시엄'으로 지분이 매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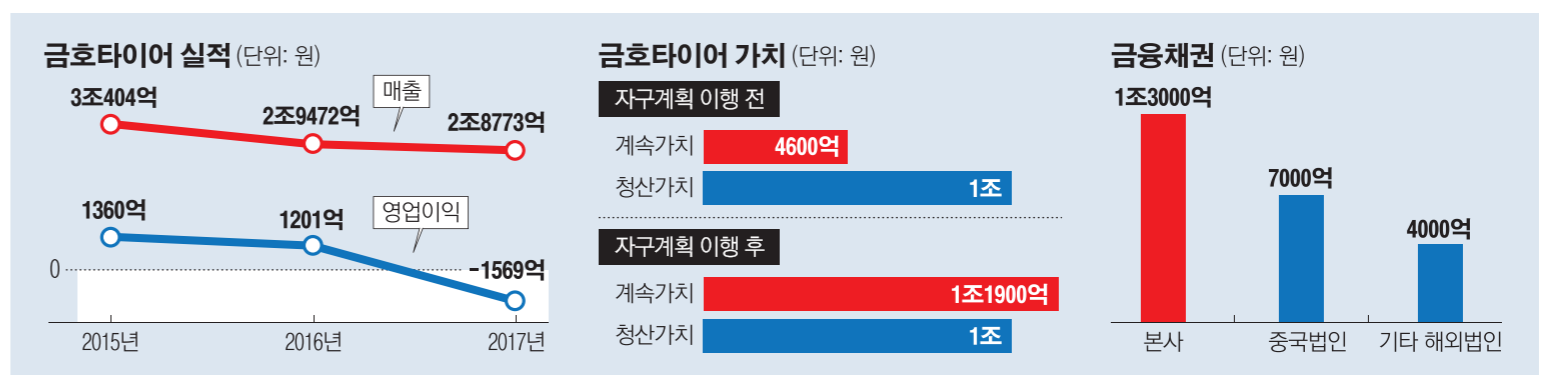
가장 처음 매각 포문을 연 STX엔진 입찰 당시에는 10여 곳 이상 업체가 매각자 측에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대형 PEF인 한앤컴퍼니는 본입찰 막판까지 STX엔진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STX엔진에 이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점쳐졌던 두산엔진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 재편을 통한 터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에서였

"조선업황 회복세지만 수요 한정적 같은 라이선스 사용 수출 경쟁력 ↓ 최소한 2곳 합쳐져야 살아남을 것"

있지만 과거 전성기 시절 물량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엔진 수요도 한정적"이라며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업체 중 최소한 두 곳이 합쳐져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앤컴퍼니는 STX엔진 인수에 실패하자 두산엔진 매각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STX엔진과 두산엔진을 동시에 인수해 합병하는 방식으로 산업군을 재편하지 않으면 기업가치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중공업까지 세 회사 모두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어 수출로도 경쟁력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다운 기자 gamja@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추진 일지

연도	일	내용
2016년	2월	채권단 지분 매각 공고
	1월	더블스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월	채권단,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요구 부결
	4월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만료
2017년	8월	더블스타, 인수가 8000억 원 다시 제시
	9월	채권단, 더블스타와 협상 결렬
2018년	1월	채권단, 해외자본 유치 통한 정상화 추진
	2월	노사 합의 불발로 MOU 체결 위한 이사회 연기
	3월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반대 고공농성 돌입 채권단,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추진 공식 발표



DAESANG 대성주식회사

맛의 기적 한 꼬집

오슬래미원

이 광고는 대성주식회사의 '오슬래미원' (Oslamiwon) 맛소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주인공은 정중하고 세련된 모습의 한 남성이며, 그는 고급스러운 턱시도(타이틀: 오슬래미원)를 입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맛소스가 들려져 있으며, 그 소스가 공기 중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마법의 기적 같은 순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오슬래미원'의 제품 패키지가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발효미원' (Fermented Miwon)이며, 다른 하나는 '감칠맛미원' (Umami Miwon)입니다. 배경은 따뜻한 조명과 함께 흐릿하게 처리된 실내 공간으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北核 해결’ 운전대 잡은 文 대통령 ‘한미·한일·한중일’ 릴레이 頂上외교

남북·북미 정상회담 사이 만나 주변국에 ‘비핵화’ 협조 요청 내일 예술단 평양공연 실무회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한중일 정상회담 등 ‘릴레이 정상외교’에 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실무 협상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올해 남북 화해 무드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아치 쇼타로(谷内 正太郎) 일본 국가안보보좌관이 17~1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주로 한미 양자 간에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졌으며, 방북 특사단의 대중·일·러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4~5월중 연이어 개최되는 상황에서 양 정상회담의 성공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조

韓 정의용·美 맥매스터·日 아치, 3국 안보수장 샌프란시스코서 회동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아치 쇼타로(谷内 正太郎) 일본 국가안보보좌관이 17~1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율을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먼저 20일 북한과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 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한다.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이미 4월 초로 예정된 만큼 속도가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회담 대표단은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작곡가 윤상 씨를 비롯해 박형일 통일부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북측에 통보한 상태여서 이날 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설과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 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

이 이번 고위급회담의 대표로 나선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따라 ‘릴레이 정상외교’는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릴레이 정상외교 강행군을 해 힘들게 얻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靑 개헌 압박에...국회 이제서 ‘우리가 주도’ 정세균 의장 “국회가 내용·과정 완결”...민주당도 발의 연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에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의 주도권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순방 전 개헌안을 발표하고 발의 시기는 늦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부터 21일로 발의의 시기를 확정했던 것은 아니고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21일이었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며 몇 가지 쟁점만 좁히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헌법자문위원회 제안한 핵심내용은 그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의 한글화’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며 국회가 개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그 핵심축의 하나가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의 핵심

은 분권”이라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썼다. 이어 “국회가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완결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움직임에 놓고 ‘1여(與) 대 4야(野)’의 구도가 형성됐다. 처음부터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외에 여권에 우호적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일로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 대통령께 요청한다”며 “야당 주장대로 개헌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26일까지 국회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발의가 늦춰졌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적다. 대통령 개헌안에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들어가는 만큼 야당이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김하늬 기자 honey@

지방선거 核으로 떠오른 ‘개헌·추경’

동시투표 안될 땐 ‘개헌 對 반개헌’ 구도...추경, 5월안 처리 힘로

6·1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4월 국회에선 추경과 개헌이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로서는 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판세이지만, 4월 국회에 따라 지방선거의 운도 갈릴 수 있어서 여야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4조 원가량의 청년 일자리 정부 추경안은 야권의 반발에 부닥쳤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갈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발의되면 처리 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 이후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면 6월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늦어도 5월까지의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청와대 개헌안 발의도 여야 갈등을 뜨겁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부터 소수정당인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안철수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는 당 안팎에서 “지지를 제고를 위해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안 위원장이 받아들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20일 1호 영입 인사 발표를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외부인사를 수혈하고 전략공천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인다. 하지만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을 시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정용욱 기자 dragon@

총리 중남미 순방 따라가서 이구아수 폭포 관광한 輿野 의원들

‘특별수행원’ 자격 고용진·성일종 동포간담회 등 공식일정 참가않고 세계물포럼 참석 이유로 폭포 방문 총리실 “의원들이 영사관에 요청”

여야 의원들이 중남미 순방에서 공식일정 대신 이구아수 폭포 관광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이남연 국무총리의 중남미 순방에 동행해 예정된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1박 2일간 이구아수 폭포 관광

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천에서 출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박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2박,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박을 한 뒤 토요일(17일)과 일요일(18일) 공식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구아수 폭포 관광을 떠났다. 해당 의원들은 이 총리가 13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떠난 중남미 순방에 한-브라질 의원 친선협회 소속(고용진)과 한-도미니카 의원 친선협회 소속(성일종)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함께했다.

애초 이들은 이날 오전 이 총리와 함께 한인타운인 상질물 기공식과 한인 상가 격려 방문 뒤 오후에는 브라질 동포간담회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 참석을 위해 방문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이구아수 폭포 방문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행원 자격인 이들의 전체 공식일정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 이구아수 폭포 관광비용을 이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했다는 지적이 없다. 상파울루에서 이구아수 폭포를 방문하는 1박 2일 관광비용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항공권은 1인당 40만~50만 원, 호텔은 20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총리실이나 외교부에서 폭포 관광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폭포 관광은 의원들이 총영사관에 요청해서 준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동민 기자 lawsdm@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가장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워줍니다

힘들 생활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캠코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 기회를! 국가토지관리 및 미납세금회수로 국고를 튼튼히!

농정수장 자리 비우자... 활개 치는 AI

김영록 장관,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퇴 평택·양주 등 신관계 농장 4곳서 AI 발생 제주도 제외 전국에 이동중지 명령 조치

한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I 방역을 진두지휘할 농정 수장 자리가 공식인 영향이 즉각 나타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에 소재한 신관계 농가 3곳에서 전날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평택 농장에서 가금들

분양받은 여주 신관계 농장도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신관계 농장에서 연속으로 4건의 AI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48시간 스탠드스틸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 개소에 이른다.

이번 스탠드스틸에 대해 농식품부는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역학농가 및 시설이 전국에 분포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조만간 AI가 전국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업계에서는 종식 단계에 접어들던 AI가 농정 수장의 공식 직후 확산한 점에 주목한다. 김영록 전 농

식품부 장관은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14일 인사혁신처에 사직원을 제출한 바 있다.

8개월 만의 정계 복귀지만 임기 동안 AI 방역만큼은 전년 대비 발생건 5%, 살처분 10% 수준으로 막아냈다는 평을 받는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겨울 들어 첫 AI가 발생하자 김 전 장관은 부처 실국별 장관배 추구대회를 전면 취소하고 무기한 중단한 바 있다.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이 오고 나서 업무가 가중됐다는 하소연이 들었다. 이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책임질 만한 일을 피하며 AI 방역에 몰두했다는 전언이다.

본인도 15일 이임사에서 "장관으로 있는 동안 여러 현안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직원 여러분의 업무가 대폭 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일을 잘하려는 욕심에 직원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조직에 지나친 긴장감을 준 것은 아닌지 미안하게 생각된다"고 시인한 바 있다.

장관 공백으로 느슨해진 방역은 잇따른 AI 발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기도 전에 방역대를 해제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술청사에서 긴급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고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 관계기관 및 현장방역 담당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자세로 경각심을 갖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경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환율조작국 오명 벗어나자”

기재부·韓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검토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 등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누명을 벗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잖아도 미국은 철강 등 관세 조치를 통해 통상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IMF와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62년 외환시장 개설 이래 개입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IMF에 2005년 1월부터 매월 외환(FX) 선물 환 포지션을 공개하고 있는 중이다.

외환당국은 환율을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다만 쓸림이 있을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미세조정)에 나서고 있다.

다만 IMF와 미국은 한국이 자국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왔다. 실제 IMF는 한국 관련 보

고서에서 환율정책 투명성을 강조해왔다.

미국 역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 중 하나인 일방적 시장 개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가 그 기준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여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있을 때도 언급됐었다.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이익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다른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MF와 환율문제 투명성에 대해 협의해왔다. 실무책임자가 이른 시일 내에 IMF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모레노 IDB 총재 만난 김동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IDB(미주개발은행) 총재와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내 첫 항공산업 일자리 실태조사

민간투자 유도·신산업 발굴 등 발판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공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실태조사를 벌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지난해 10월 '범부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 분야별 과제 발굴에 나서면서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중간 항공 수요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LCC) 취항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지만 항공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없어 일자리 관점의 통합·연계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항공산업(항공 운송업)을 운수 및 창고업, 공항운영업(공항공사) 및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지상조업 등)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체 항공산

업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발주한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관련 법령 체계 등을 활용한 항공산업 범위와 기타 연관산업 현황 파악 및 산업별 전망분석, 해외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항공산업 범위 비교분석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한 항공산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항공산업 분류체계 조사 및 문제점 분석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관련 산업 재분류 방안 및 국가 승인통계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별 민간투자 유도, 유망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방안 제시 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항공업계-근로자 불합리·불공정한 관행 △근로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방안 △항공산업 업계-구직자 간의 미스매칭 현황 및 개선 방안 △일자리 중심 업무 추진 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도훈 기자 soqood@

韓 화장품·의료기기·식품 '中 인허가' 획득 쉬워진다

국내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중국 인허가 획득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19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따르면 KTR는 이달 17일 중국 절강성 질병예방통제중심(ZJCDC)과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및 상호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TR과 중국 ZJCDC는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기

업의 중국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시험·검사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기의 미생물학적 시험, 화장품 및 식품의 중국 내 시험검사, 화장품과 의료기기 융복합 제품의 기술자문과 정보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양 기관은 세미나 개최 등 연구 활동과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KTR는 국제기구 2곳, 30여 개국 130여 개 기관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중국 상하이, 칭다오(靑島), 선전, 충칭과 독일, 베트남, 브라질 외국 7개 지사를 두고 국내 기업의 신속한 해외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박병립 기자 ribly@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고지방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며 대사율 향상시켜 주는 순수 녹차 성분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녹차에서 찾은 현대인의 체지방 관리 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쉽게 늘고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죠
고지방, 고탄수화물, 고당류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을 돕는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식습관 속 대사건강을 관리합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솔루션, 바이탈뷰티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상담 전화: 080-023-5454

VITALBEAUTIE

서울시 '한강아라호' 운영업체 변경 논란

現 운영사 '렛츠고코리아'에 임대 완료後 매각 밝혔다가 새 입찰공고 내고 이랜드와 계약... '계약파기' 갈등 증폭

서울시가 시에서 소유한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영세업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 같은 부당 행위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여의나루역에 가장 가까운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 '한강아라호'에는 '박원순 OUT, 한강본부장 퇴출', '아라호는 서울시 갑질 총탄에 침몰' 등 과격한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선착장 인근에는 사안에 대한 입장문이 곳곳에 게시돼 있다.

10일부터 '한강아라호'와 선착장을 점거하고 있는 주체는 '한강아라호'를 서울 시로부터 3년째 임대해 운영해오던 중소기업 '렛츠고코리아'다. '렛츠고코리아'는 2016년 8월께 서울시가 입찰공고한 '한강아라호'의 임대사업을 낙찰받아 '한강아라호'와 선착장에 대한 8개월간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기간이 연장돼 '렛츠고코리아'의 임대계약 기간은 이달 31일로 만료된다. '렛츠고코리아' 측은 임대계약 당시 서울시가 임대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강아라호'를 '렛츠고코리아'에 매각할 것을 명시했으나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렛츠고코리아' 외의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렛츠고코리아'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당시 계약 조건에 근거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2016년 8월 당시 '한강아라호' 임대계약 조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입찰한 업체들의 임대제안서에 아라호 매입에 대한 시기, 가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때의 입찰공고에서는 100점 만점의 평가항목 중 총 32점을 차지하는 입찰가액 뿐 아니라 매입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5점의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당시 렛츠고코리아는 90억3000만 원의 매입금액과 임대개시 후 90일 이후 협상에 나설 것,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12월까지 매입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

당시 '렛츠고코리아'와 운영사업 입찰에 함께 참여한 두 곳의 운영업체 역시 서울시의 매입 요구조건을 향후의 선박 매각의사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렛츠고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며 '렛츠고코리아' 측 변호인은 법리적 관점에서 서울시의 매입 제안서 요구와 이것이 반영된 운영업체 선정은 서울시가 선박을 매각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재산

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새로운 임대사업자 선정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운영업체 나름의 입장이 있었지만 시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 입찰공고를 낸 것이고 이에 대해 더 높은 입찰가액으로 입찰업체에 낙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매각 의사를 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매각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는 100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한 평가항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매각의사로 볼 수 없다"며 "계약상에는 매각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속을 어겼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MB 구속' 여부 고민 깊은 檢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 '헬로키티' 제조업체 또 敗訴 "산리오일본 등에 9.7억 지급하라"

서울高法 "로열티 보고·정산 누락, 계약 불이행 해당"

7년간 이어진 헬로키티 로열티 분쟁에서 산리오일본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가부사기이사산리오(이하 산리오일본)이 국내 제조업체 I사와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I사 등은 산리오일본에 7억4870만 원을, 산리오코리아에는 2억213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리오 측은 국내 제조업체가 벌어들인 수익 중 로열티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축소하거나 누락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산리오 측은 1, 2차 감사 결과 I사 등이 실제 거래로 로열티 수령한 개런티와 로열티 액수에 차이가 있었고, 이 사실을 고의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I사가 로열티 보고 또는 정산을 누락하고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산리오일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 간 맺은 계약에 따르면 I사 측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마스터계약을 해제당할 위험을 감수하면

서까지 산리오일본에 자신의 계약위반사항을 스스로 보고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I사 등은 2008~11년 산리오일본과 맺은 마스터계약과, 산리오코리아와 맺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총 169억7262만 원을 지급했다.

제조업체 측은 "계약해지로 인해 서브라이선스권을 박탈당하고 유통 대리점을 뺏기는 등 731억 원 상당의 기업가치가 손상됐으므로 그중 일부인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I사 출자에 참여한 국내 업체 J사가 낸 소송에서 "마스터계약과 업무위탁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마스터계약을 이유로 한 산리오일본의 마스터계약 해지, 산리오코리아의 업무위탁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산리오 측 형사사고소로 시작했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2012년 6월 구속됐다. 하지만 1심 무죄, 2심 징역 3년6개월 등 엇갈린 판결 끝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현재 파기환송 이후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재판만 5번째인 셈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5명 추가 인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자 19명과 태아피해 2명, 천식피해 24명 등 4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인정했다.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또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천식피해 신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사진(CT)이 없어도 방사선촬영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

도록 의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 신청자 5995명 중 3995명(66.6%)에 대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천식피해 신청자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이 확인된 2014명 중 1295명(64.3%)에 대해 조사판정을 마쳤다. 태아피해 신청은 51명 중 44건(86%)의 판정이 완료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손상유해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大法 "한진중공업, 불법 인정"

대법원이 7년 전 발생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가 영도조선소를 침입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4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동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다. 홍 씨는 2011년 6월 1차, 7월 2차 시위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장효진 기자 js62@

장시간 근무 마트 직원 '과로사' 인정

정기 휴식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 때 잠 시 쉬는 방식으로 근무한 마트 판매부장이 과로사를 인정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망 당시 33세였던 남민 심모 씨를 대신해 근무 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소송을 낸 하모 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 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심 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앓고 있던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실빈맥이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망률은 1% 내외로 낮다"며 "지병의 사망률과 망인

의 사망 당시 연령을 함께 고려하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병의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했다"며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정한 휴무일에도 교육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의 돌연사 위험을 높이므로 망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 point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지금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전깃불만큼이나 반딧불이도 많은 청정한 세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흘려보내던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기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에도 기여하는 혁신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옳은 미래.



전기차 배터리/부품



고효율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스마트 빌딩 시스템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엇갈린 자문사 의견... 株主들의 선택은

CEO·사외이사 선임 쟁점 23일부터 '슈퍼주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국민銀 노조 제안 '표 대결' 지배구조 개선 이슈화에 국민연금·외인 주주권 행사 촉각

금융지주사가 23일부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KB금융지주의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승인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외의결권 자문사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주주총회는 CEO 연임을 결정하는 하나금융지주다. 앞서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자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김 회장의 3연임 안전판대를 권고하면서 주주들에게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반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동일 안전에 찬성 의견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김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주요 사유로, 최순실 연루 인사 특혜와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등 각종 의혹으로 후보의 사회적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ISS는 최근 김 회장 취임 이후 하나금융지주 실적이 개선됐다는 이유를 들어 김 회장의 연임 지지를 권고한 상황이다.

K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전에 대한 '표 대결'이 예고돼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사외이사 추천 안전이 한 차례 부결된 뒤 재차 주주제안 형식을 빌려 권순원 수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CGCG는 권 교수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ISS는 "권 교수의 상장사 이사회 활동 경험이 없어 이사로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그러나 주요 금융회사마다 주주의 약

금융지주사 주주총회 주요 안건

신한금융	사외이사 3명 신규선임(김화남, 최경록, 박병대)
KB금융	-사외이사 3명 신규선임(신우석, 최영희, 정구환) -노조 주주제안(사외이사 선임의견, 정관변경의견)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3연임 -사외이사 5명 신규선임(김홍진, 박시환, 백태승, 양동훈, 허윤)
농협금융	-김용환 회장 3연임
BNK금융	사외이사 3명 신규 선임
DGB금융·JB금융	사외이사 2명 신규선임

70%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ISS 같은 해외 자문사 권고가 주총 결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안전 통과를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견결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KB금융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CEO 재선임과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둘러싸고 의결권 자문사가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면서 주총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워졌다"며 "그러나 양사 모두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금융회사의 단일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 만큼 이번 주총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선안 건들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표가 몰릴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CGCG는 신한금융 주총 안전 중 일본계 사외이사 4명과 주재성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열리는 신한금융 정기 주총에 상정될 사외이사 선임 관련 8건의 안건 중에서 김화남, 최경록, 허리카와 유기, 필립 에이브릴 선임 건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감사위원 후보 관련 4건의 안건 중 주재성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김화남, 최경록, 허리카와 유기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일본계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기자 acw@
김보름 기자 fullmoon@

生保社 해지환급수수료 '인하' 안 하나

작년 저금리 우려 일제히 인상 올해 금리인상 예고엔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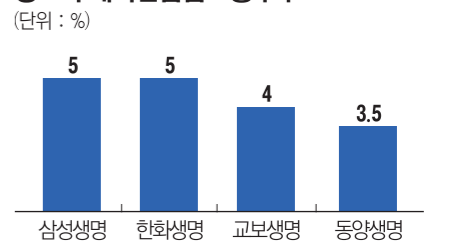
1년 전 저금리에 대한 우려로 생보사들이 일제히 올렸던 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GMSB)를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졌지만 앞서 재빨리 올렸던 수수료를 내리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종신상품을 취급하는 생보사들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 사이에 올렸던 GMSB를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삼성생명, 신한생명, 교보생명 등은 작년 각각 3.5%에서 5%로, 3.5%에서 4%로 올렸다. 동양생명은 작년 초 3.5%로 GMSB를 처음 부과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생보사의 경우 통상 보험상품 갱신을 1월과 4월에만 한다"며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GMSB란 가입시 약속했던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다.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떨어질 경우에도 보험사가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대신 그 위험만큼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생보사들이 GMSB를 도입하거나 높인 것은 최근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서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

생보사 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 (단위: %)



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해 피해가 불가피했다. 당시 생보사들이 대놓고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수수료를 높여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제는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바뀌었음에도 생보사들이 여전히 GMSB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후 금리인상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역마진 우려 완화로 금융업권 중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생보사들은 금리인상 기조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데는 소극적인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재빨리 수수료를 낮췄던 것과 대조적이다.

생보사들은 금리 인상 분위기만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른 것은 단 한 번"이라면서 "보위기간 갖고 저금리 당장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32兆 시금고' 2개 금고로... 위기감 커지는 우리銀

(일반·특별, 기금)

시스템 오류로 세금고지서 오발송 서울시 '단순운영' 여론 비판 거세 내년부터 2곳으로 복수 지정 방침 은행 외 상호금융권도 참여 허용

서울시금고 개요

시예산	31조8000억 원
1금고	일반, 특별 회계 관리(은행 지원)
2금고	기금 관리(은행+상호금융기관 지원)
주요 업무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원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관리 기간	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4년간)

시금고 선정 절차

3월 30일	참여 희망 금융사 대상 설명회
4월 25~30일	금융사 제안서(신청서) 접수
5월 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금고지정 2곳 선정

년, 각 금고를 관리할 금융사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복수금고로 전환된 데엔 시금고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과 우리은행의 전산사고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6일 우리은행 세금 전산망을 이용하는 서울시의 세금 고지서가 시민 76만 명에게 잘못 발송되는 사고가 터졌다.

우리은행은 104년 만의 복수금고 전환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은행 내 부 관계자는 "손태승 행장이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본인 입김 때 103년 독점 운영이 깨진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32조 원에 은행장들의 명운을 건 다투어 됐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손태승 우리은행장한테도 서울시금고 수성은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번에 복수금고로 전환되면서 최소한 2금고는 다른 금융기관에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울시가 104년 만에 복수금고로 전환한 취지를 생각하면 1금고와 2금고를 한 은행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2금고는 다른 은행한테 가지 않겠다"고 했다.

금융권은 일반·특별 회계를 관리하는 1금고는 우리은행이 차지하되,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 중 한 곳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100년 이상 운영한 노하우가 있

는 만큼 서울시가 주금고를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이유에서다. 2금고를 두고는 나머지 3대 시중은행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들 은행은 2014년 서울시금고 입찰에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선 2금고의 경우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도 지원하도록 길을 터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금고를 관리할 새로운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를 관리하게 된다. 금고지가 되면 서울시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과 보관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수료 등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 30일 참여 희망 금융기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내달 25~30일 금융사들의 신청서를 받는다. 그 뒤 별도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에 금고를 관리할 2곳 금융사를 최종 선정한다.

박규준 기자 abc8

비씨카드, 할부금융업 진출 추진

사업목적 '대형 업무' 추가 변경

비씨카드가 올해 본격적으로 할부금융업 진출을 꾀할 전망이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할부금융 대형 업무를 추가하는 사업목적 변경을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금융사업의 신규영역 창출을 위해 할부금융 대형 업무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관계국의 허가를 위해 할부금융 업무대행 사전승인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비씨카드는 할부금융 사업을 통한 수익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할부금융은 최근 카드업계의 수익을 개선할 활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대출 수익 감소와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

20조 원에 육박하는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도 5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전업계 카드사 중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롯데 등 5곳이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고, 수익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이들의 할부금융 취급액은 3조11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증가했다.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460억 원에 달했다.

비씨카드도 지난해 신기술금융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금감원에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추가 등록을 신청해 수익원 확보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비씨카드는 은행, 카드사 등 회원사로부터 신용·체크카드 결제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카드결제 프로세싱 업체다. 때문에 할부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융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정수현 기자 int100@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임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계, 입력하여 기장 시간이 줄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DOUZONE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 수임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계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기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임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면 복지 문제까지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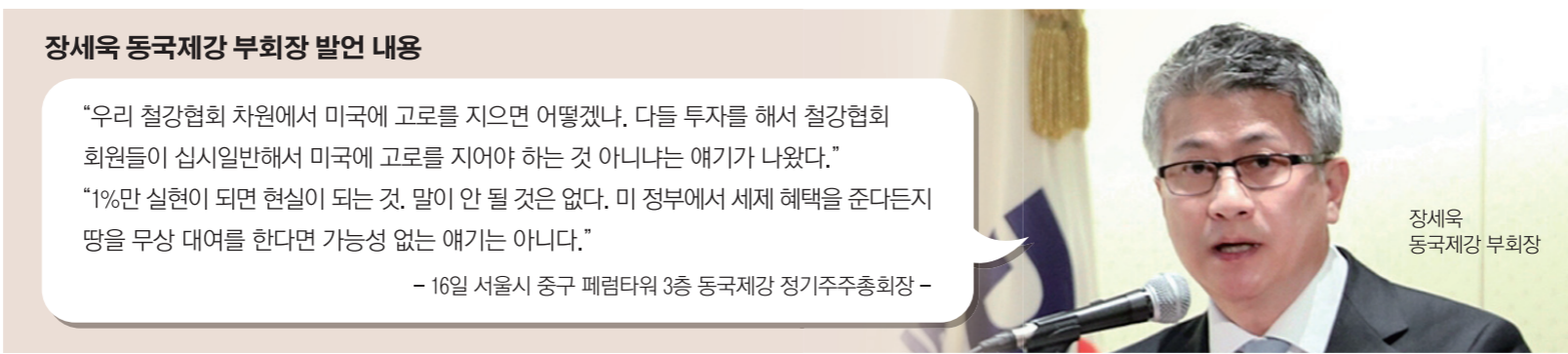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美 철강관세 폭탄 피할 해법은?”... 묘책 찾는 철강업계

“세계제택되면 美 고로제철소 짓자”
장세욱 부회장이 “가능성 있어”
“답답한 업계 고민 여실히 드러내”
부지 선정 등 현실성은 떨어져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발언 내용

“우리 철강협회 차원에서 미국에 고로를 지으면 어떻겠냐. 다들 투자를 해서 철강협회 회원들이 심사일만해서 미국에 고로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1%만 실현이 되면 현실이 되는 것. 말이 안 될 것은 없다. 미 정부에서 세계 제택을 준다든지 땅을 무상 대여를 한다면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

- 16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 3층 동국제강 정기주주총회장 -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미국의 철강 ‘몽니’에 속앓이를 하는 국내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각에선 업계 공동으로 미국에 고로 제철소를 짓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철강업계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 고로 제철소를 짓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업은 동국제강이다. 동국제강은 고관세 조치가 압박하자 미국으로의 도급, 후판, 헝강 등 수출을 중단했다. 장

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 이후 미국에 고로를 짓는 방안에 대해 “1%만 실현이 되면 현실이 되는 것”이라며 “말이 안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제철소에 대한 세계 제택을 주거나, 부지를 무상 대여하면 미국 제철소 건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부가 나서 미국의 철강 관세 ‘제외’ 협상을 벌이는 것과는 별개로 철

강업계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제철소를 짓는다면 동국제강이 브라질에 세운 CSP제철소의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CSP제철소는 동국제강이 2005년부터 주도하고 기획해 포스코, 발레(브라질)와 3자 합작으로 세운 3차 합작 제철소다. 동국제강, 포스코, 발레가 각각 30%, 20%,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발레가 원자재를 조달하

고, 동국제강이 제철소의 전체적인 운영과 생산을 담당한다.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을 담당하며 20%의 지분을 가져갔다. CSP제철소는 2016년 본격 출하한 이후 연간 300만 톤의 슬래브를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다자 협력 형태의 제철소 건립이 추진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다. 제철소를 지어도 안정화되기까지 적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지 선정과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완공 이후에도 안정화되기까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포스코의 경우,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에 연간 300만 톤급의 크라카타우 제철소를 지은 뒤 올해 흑자를 내기까지 4년이 걸렸다. 조업이 안정화 되고 본격적인 수익을 내는 데 4년이 소요된 셈이다.

이러한 출혈을 알면서도 철강업계가 제철소 이야기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현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있다따라 선인한 바 있다. 철강업계의 미국 제철소 발언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미국에 제철소를 지어 철강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 현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미국 정부가 바라는 고용 창출 효과도 만들겠다는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적자투성이’ AS센터 매각·구조조정 가다?
한국지엠 “복지후생비 부담” 노조는 구조조정 반발 거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에서 인사 말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GM) 노사 임단협 교섭에서 비급여성 복지후생비용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AS센터 매각과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한국지엠과 이 회사 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의 적자규모 축소 방안 가운데 지역 AS센터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한국지엠은 서울 2곳을 포함해 △부산과 △대전 △인천 △광주 △원주 △전주 △창원 등 9곳에 지역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센터 근무 직원은 약 700명이었지만 이번 희망퇴직 과정에서 약 200명은 이미 퇴사를 신청했다.

한국지엠 지역 AS센터는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이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임단협 교섭을 통해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GM과 한국지엠은 지역 AS센터를 없애거나 최소 수준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원전 외주(아웃소싱)’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지엠은 지정서비스, 부분 정비소 등의 형태로 400개 외부 업체에 정비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태다.

이들을 제외한 지역 서비스센터의 매각 및 구조조정은 적지않은 비용 감축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비 감축효과뿐 아니라 서비스센터의 부동산 등 자산 가치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서울 양평동 서비스센터의 경우, 대지 면적만 1만㎡(약 3000평)에 이르고 건축 연면적도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부지·건물 매각가만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조는 서비스센터 구조조정 가능성을 의식한 듯 이미 지난 15일 한국GM 장기발전전망 관련 요구안’의 두 번째 조항에서 “회사는 정비사업소 시설투자과 관련, 2013~2015년 단계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언급한 정비사업소 관련 합의 내용은 지역 정비사업소 수 확충, 리모델링, 작업 환경 개선 등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전체 인건비 지출 항목에서 여전히 학자금 등 비급여성 복지후생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복지후생비 삭감은 필수적이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대북제재로 곳곳서 시장화 열린 시각으로 北 이해해야”

대한상의 ‘남북관계 콘퍼런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열린 시선으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란코프 국민대 교수, 이정철 송실대 교수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패널들은 북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이 5·30 담화를 통해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고,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정부뿐 아니라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북한의 시장경제요소가 늘어났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규모 주택건설, 장마당 내 신용카드 통용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이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의 제재 동참과 북한경제의 시장화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면서 “제재가 지속되면 오히려 북한의 주민 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남북관계가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한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정철 송실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 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많아 제약요인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열린 시선으로 북한을 이해할 필요에 대한선 패널 모두가 공감했다. 이정철 교수는 “우리 사회에 북한을 과거의 연장선 상에서 판단하고 감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의 변화나 실제에 열린 시각을 갖고 제대로 이해해야 북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훈 기자 junh216@

조양호 탄 진에어, ‘LCC 제2 도약’ 승부수

趙 한진 회장 사내이사로 선임
이병주 주총 안전 상정 예정
‘책임경영’ 강화 의지 표명
새비전 TF 구성...조직개편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LCC(저비용 항공사) 시장에서 진에어가 승부수를 던진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등에 업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진에어는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오는 23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조 회장은 현재 지주회사 한진칼을 비롯해 주력사 대한항공, (주)한진 등 4개 계열사 대표와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2곳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상태다. 이미 6곳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조 회장이 진에어 이사 진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 회사 측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에어의 사내이사에는 오너 일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오너 일가 중 진에어의 실질적인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의 경우 국적 문제로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상황이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 지난해 한진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으로 진에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이 진에어 사내이사로 나선 것은 진에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분석이다.

특히 최근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격변기를 맞고 있는 LCC 시장에서 진에어가 경쟁사인 제주항공을 제치고 확고한 선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이라는 막강한 지원군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과의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주항공은 매출 9963억 원, 영업이익 1016억 원을 기록한 반면, 진에어는 매출 8884억 원, 영업이익 970억 원을 나타냈다.

이에 진에어는 올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초 진에어는 실무자 10여 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에도 나섰다.

진에어 관계자는 “올해 진에어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영업조직 강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에어는 올해 7월 유니폼 교체에 나서는 한편, 기존 LCC와 차별화된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IPO로 확보한 투자자원을 통한 기체 확대로 노선 다변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AI 무장하고 아이 안전까지... 키즈폰 열풍

SKT 9일 만에 1만대 판매 돌풍
LG U+·KT도 앞다퉈 도전장
네이버, 이달末 ‘아기’ 출시 예정

어린이 유해 사이트 차단하고
실시간 자녀 위치 확인·제어

제품명	키즈폰	무민키즈폰	키카오프렌즈 키즈워치	아기
제조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출시일	3월 6일	2월 7일	3월 7일	3월 중
출고가	26만 원	25만3000원	27만5000원	미정
특징	일반 스마트폰에 아이언맨, 마키마우스 무민 디자인, 음성 입력 디자인, 어린이 전용 메신저 ‘미니톡’ 제공, 유해물질 원천 차단	핀란드 국민 캐릭터 무민 디자인, 음성으로 정보, 날씨 검색, 500만 화소 카메라 사진 촬영	6종 게임, 실시간 위치 알림 기능 탑재, 아이가 주로 쓰는 단어 자동인식 가능	장소와 시간 등 이동 패턴 학습, 평소 경로 이탈하는 경우 알림

갤럭시S9, 아이폰X(텐) 등 프리미엄 폰 출시에도 꺾이지 않던 이동통신 시장에 ‘키즈폰’ 열풍이 불고 있다. 새하기를 맞아 자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등이 맞물리면서 동심과 학부모 지갑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6일 출시한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키즈 미니폰’ (출고가 26만 원)은 출시 9일 만에 판매량 1만 대를 돌파했다.

키즈 미니폰은 초등학교 2~5학년용 공략하기 위해 일반 스마트폰 형태에 마블의 아이언맨과 마키마우스 등을 입혔다. 이 제품은 어린이의 유해 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접속을 차단해 준다. 대신 어린이 전용 메신저인 ‘미니톡’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AI 플랫폼과 라이언 등

키카오 프렌즈 인기 캐릭터를 넣은 키카오프렌즈 키즈워치(27만5000원)로 키즈폰 시장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냈다. 2016년 3월 출시했다가 단종된 ‘슈니버트 키’ 이후 2년 만에 경쟁에 가세한 것이다.

키카오프렌즈 키즈워치는 부모가 스마트폰에 U+가족지킴이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자녀 위치를 확인하고 키즈워치를 제어할 수 있다. ‘나에게 전화’ 기능을 통해 아이가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키즈워치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할 수도 있다. 어린이가 주로 쓰는 단어, 영역, 문장 등을 AI로 학습해 음성 인식 성능도 높였다.

KT는 지난달부터 음성인식 AI를 탑재한 어린이용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무민 키즈폰(25만3000원)을 판매 중이다. 무

민은 핀란드의 국민 캐릭터로 국내에서도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무민 키즈폰은 가가지니 음성 AI로 폰을 제어할 수 있으며 지식검색 등이 가능하다. 국내 키즈폰 최초로 무전기 기능을 활용한 무전통은 버튼을 누르고 말하면 동시 접속한 친구들과 통신이 가능하다.

네이버도 키즈폰 경쟁에 참전한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랩스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8’에서 선보인 자체 개발 위치형 키즈폰 ‘아기(AKI)’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의 출발·도착 시 알림을 제공하며 반복해서 방문하는 장소와 시간 등 이동 패턴을 학습해 평소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알려준다.

김범근 기자 nova@

‘가격·퀄리티·유행’ 하나도 놓칠 수 없죠

유행가 팀파워

현대홈쇼핑 패션상품기획팀

“1시간 만에 1만7000세트 판매, 총 20억5000만 원 매출.” 현대홈쇼핑 패션 부문 시간당 매출 신기록이 수립됐다. 지난달 22일 현대홈쇼핑 PB(자체 상표)인 ‘밀라노스토리’ 론칭 방송에서다. 이는 현대홈쇼핑의 ‘드림팀’이라 자처하는 패션상품기획팀의 성과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현대홈쇼핑 패션상품기획팀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우선 패션잡지들이 가득히 쌓인 회의 테이블이 반긴다. 초록색 칠판에는 블랙 정장을 시크하게 차려입은 30대 여성, 트렌치코트로 우아하게 멋을 낸 50대 여성이 그려져 있다. 팀원들은 마치 자리에 앉은 법을 잊어버린 듯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2016년 말 본사 패션사업부 내에 패션상품기획팀을 신설했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PB브랜드 개발에 착수했다. 방송 MD 17년 경력의 베데랑 팀장부터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팀원 등 총 10명의 정예멤버로 팀을 구성했다.

이 팀이 올해 첫선을 보인 패션PB ‘밀라노스토리’ 론칭 방송에서 일을 낸 것이다. 장지원 책임은 “올 시즌 유행 아이템인 ‘셋업류(재킷 팬츠 세트)’와 트렌치코트를 아이템으로 기획한 것이 주효했

다. 고기능 원단을 사용해 스판 성분이 없어도 신축성이 뛰어나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스타일로 단화나 운동화에도 코디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았던 것이 고객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라노스토리’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성비’를 강조했다. 앞서 현대홈쇼핑의 첫 패션 PB로 신호탄을 터뜨린 ‘라씨엔토’와의 차별점이다. 지난해 론칭한 라씨엔토는 합성섬유를 쓰지 않고 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와 봉제 기법 활용 등 프리미엄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PB를 추구하는 ‘밀라노스토리’에 브랜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협력사를 수십 군데 방문한 끝에 한 곳과 계약에 성공했다.

장지원 책임은 “장인정신이 깃든 패턴과 기술력이 바로 ‘밀라노스토리’의 핵심 무기”라며 “업계 우수 협력사를 확보해 상품 품질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밀라노스토리’ 웃을 입는 현대홈쇼핑의 고객이 만족할 만한 최고의 웃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보 없는 아이템회의, 상품제작사 계약도 수십 군데 ‘발품’ 열정 가득 ‘패션 트렌드 선도’ 자부심… ‘밀라노스토리’ 론칭 1시간 20.5억 매출

PB를 지향하고 있다.

강진규 책임은 “라씨엔토는 4개월간 30만 벌가량을 판매하며 지난해 현대홈쇼핑 히트 상품 9위에 오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일반 패션 브랜드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캐시미어, 울, 링크 등 최상의 소재와 차별화된 디자인, 고급 봉제기법 등을 적용해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라씨엔토의 성공에 힘입어 내놓은 ‘밀라노스토리’는 가성비를 강조하면서도 장인정신을 놓치지 않았다. 난관도 있었다. 현대홈쇼핑이 생각하는 품질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제조 협력사를 찾

정다현 선임은 유관 부서와의 협정도 흥행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번 패션PB 론칭에 유관 부서들의 협업도 빛났다. 마케팅적으로도 ‘멋진 커리어 우먼’을 떠올릴 수 있는 모델 정지영 씨를 섭외했고, 홈쇼핑 최초로 상품 페이지에 ‘리얼핏 동영상’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이탈리아 편집숍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세트 디자인을 구현해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한 방송도 흥행에 한몫했다”고 전했다.

현대홈쇼핑의 패션상품기획팀은 오프라인 매장 ‘플러스샵(PLUS#)’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현대시티몰 가든파빌



최근 신규 패션 PB ‘밀라노스토리’로 현대홈쇼핑에서 시간당 매출 신기록을 세운 패션상품기획팀 팀원들이 서울 천호동 본사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패션상품기획팀은 박경옥 팀장(부장) 등 경력 10년 이상의 책임급 5명과 경력 2~8년 사이의 선임급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현대홈쇼핑

점도 운영 중이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유행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팀원 모두가 일하고 있다”며 김준하 책임은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팀의 원동력은 화끈한 열정이다. 남보라 책임은 “업무적 이슈나 신규의 류 아이템 기획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때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의견을 주고받지만, 팀원의 생

일 등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모여서 샴페인을 기울이는 ‘화끈한 팀’이라면서 엄지를 들어올렸다. 남 책임은 “때로는 ‘PB 론칭’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진행하며 부딪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팀장님 포함 팀원 모두가 열정으로 풀뚝 뚫쳐 즐겁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지난해 10월 열린 ‘2018 S/S 헤라서울패션위크’에서 한 모델이 런웨이를 걷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디자인재단

형형색색 ‘K패션’, 서울을 수 놓는다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오늘부터 6일간 도심 전역서 열려

국내의 패션 피플들의 축제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가 19일 서막을 올렸다. 이날부터 24일까지 6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비롯해 강남, 종로 등 서울 전역에서 패션쇼, 전시, 수주설명회, 메이크업 체험존, 샘플마켓 등이 운영되며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헤라서울패션위크’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이벤트로 K패션의 위상을 알리려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하는 장이다. 2000년 서울 컬렉션으로 시작한 서울패션위크는 2015년 아모레퍼시픽 헤라가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면서 ‘헤

진출을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단순히 패션쇼를 즐기기보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바이어와 MD들을 초청해 직접 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에는 실질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를 초청하고자 기존 백화점 중심에서 온라인 편집숍으로 확대, 유통망 채널을 다변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바이어 규모도 지난 시즌 대비 40명 가량 늘었다. 미국 명품 백화점 바니스 뉴욕, 프랑스 파리 백화점 르봉마세를 비롯해 영국 멀티브랜드숍 아소스, 해외 명품 브랜드 편집숍 네타포르테, 육스 관계자 등 미국과 유럽 바이어 50명과 아시아권 바이어 130명이 한국을 찾는다. 중동지역 바이어도 참석한다. 정구호 헤라서울패션위크 총감독은 “실력 있는 국내외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 오프닝 무대 시작으로 서울컬렉션 패션쇼·제너레이션넥스트 패션쇼 K패션 해외진출 위해 수주상담 코너 마련 시민참여 행사·패션필름페스티벌 등도 열려

라서울패션위크’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이번 패션위크의 첫 무대는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가 꾸민다. 이를 포함해 37개 브랜드와 2개 기업이 서울컬렉션 패션쇼를 준비한다. 또한 2016년부터 신설된 전문 수주상담회인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에서는 90여 개 디자이너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의 수주 상담회와 제너레이션 넥스트 패션쇼가 13회 개최된다.

주관사인 한국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서울패션위크 수주실적이 매년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17 F/W시즌(3월)과 2018 S/S시즌(10월)을 통해 발생한 연간 수주실적은 778만 달러(한화 약 83억3000만 원)를 기록했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중화권 수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재단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들을 해외에 알리고 안정적인

디자이너들의 높은 수주 성과를 기대한다”며 “패션위크 기간 중 ‘디자이너 라운지’ 운영을 통해 디자이너와 바이어의 네트워킹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진 디자이너들의 지원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패션업계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신진디자이너 지원이 활성화된 런던패션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디자이너 교류 프로그램, 패션쇼, 런던 쇼룸 등 디자이너 지원과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DDP 내 패션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패션전문가와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패션필름페스티벌 및 라이브 토크’, 신진 디자이너 협업전시인 ‘다이프 플러스 모먼트’, 헤라 쿠션과 립스틱 체험존, 디자이너의 샘플을 판매하는 ‘샘플마켓’ 등이 열린다. 김민정 기자 mj@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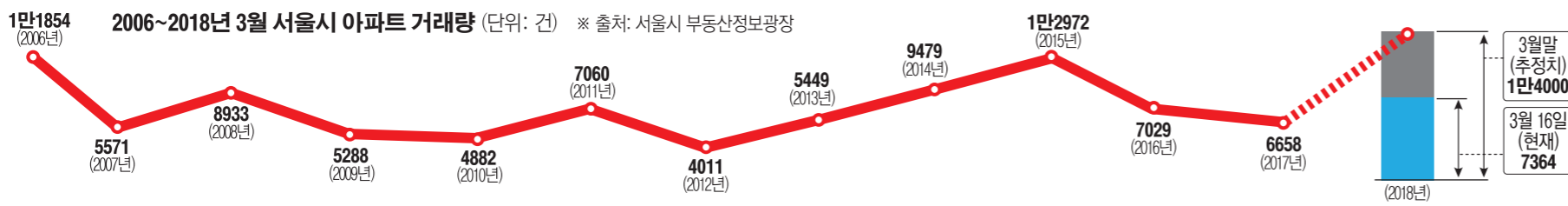
함께 창업하고 함께 성공하는 친구처럼!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던 친구는 '산업용에어백조끼'를 만들고,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는 '반려견공놀이기계'를,
 미니홈피에 재능이 있던 친구는 '가구매칭앱'을,
 그림에 끼가 있던 친구는 '색칠놀이앱'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IBK와 함께 창업하고 함께 성장하고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되도록 IBK동반자금융이 함께 뛰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稅金 폭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 폭주

4월부터 양도세 重課 ... 1·2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이달도 16일까지 7364건... 월말 1만4000여건 추정 내달 이후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매도 감소 전망

4월 양도세 증가를 앞두고 올해 석 달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폭주하고 있다. 19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두 달간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집계량은 9991건으로 이전의 최고 기록인 2015년의 6823건보다 3000여

건 많았으며, 2월에는 1만1211건으로 집계된 역대 2월 거래량 중 첫 1만 건 돌파일 뿐 아니라 종전 2월 매매 거래량 최고 기록인 2015년의 8539건을 넘어섰다. 이달 16일 기준으로 3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36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이미 전년 동월 거래량인 6658건을 보름 만에 넘어선 수치다. 이 같은 매매 거래량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달 말엔 약 1만 4000여 건의 매매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역시 지난 역대 3월 최대 거래량인 1만2972건(2015년)을 또 한 번 약 3000건가량 넘어서게 된다. 올해 들어 이처럼 석 달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폭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4월 시행을 앞둔 양도세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실제 거래와 거래량으로 집계되는 신고 시기와는 60일간의 시차가 있어 1, 2월의 매매 거래량이 이달 거래량에 다수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시장 비수기인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양도세

증가를 피하고자 하는 다주택자의 매물의 영향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부터의 전망에 대해 양 소장은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인 데다 겹투자의 여건도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내달부터의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증가가 본격 시행되는 내달 서울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서울 주택시장은 현재의 고점에서 회복을 거듭하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정용 기자 cogito@

그중에도 강남구! 지난달 매매거래, 작년의 3배

서울 강남 아파트를 향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강남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는 775건으로 전년 동월(252건)의 세 배를 웃돌았다. 1월 거래량(693건)도 작년 같은 기간(242건)을 한참 앞섰다. 지난달 강남구 내 거래 증가율을 보면 압구정동, 도곡동, 세곡동, 논현동, 자곡동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압구정동 거래건수는 지난달 54건으로 전

년 동월 9건보다 500% 늘었다. 1월에는 같은 기간 3건에서 56건으로 늘어 1766.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도곡동은 작년 2월 33건에서 올해 147건으로, 세곡동은 6건에서 26건으로 각각 순서대로 345.5%, 333.3% 늘었다. 논현동과 자곡동도 같은 기간 8건에서 29건(262.5%), 8건에서 27건(237.5%)을 각각 나타냈다. 율현동의 경우 작년 1월과 2월에 거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올해는 각각 4건, 19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자를 위한 로또’로 불리며 주목받은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아이’ 인근 지역 아파트 거래도 증가했다. 지난달 일원동의 아파트 거래량은 34건으로 전년 동월 11건을 웃돌았고, 개포동 역시 75건을 나타내 작년 동월 수치(46건)를 상회했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대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일원동 개포우성

7차 전용면적 83.69㎡ 거래가 작년 1분기에 10억5000만 원(9층)에 매매됐으나, 올해 1분기에는 같은 기준의 아파트 매매가가 12억5000만 원(14층)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주간 동향을 통해 “강남구는 일반아파트 대상으로 가격이 오른 가운데 역삼동 개나리래미안이 2000만~3000만 원 상승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4월에 시행하는 양도세 적용을 앞두고 이미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매물을 정리했다고 판단된다”며 “4월 이후에는 급한 매물이 줄어들어 거래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주목! 이곳

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또 아파트 주말 사흘간 4만여명 ‘구름 인파’ 몰려

“당첨되면 수억 원 시세차익 가능” 1996가구 중 1690가구 일반분양

올해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포주공8단지 공무원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아이 개포’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견본주택에는 일요일 오전점에도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 여러 겹으로 1km 이상 줄이 늘어선 있었다. 일대 교통 역시 마비됐다. 방문객들은 아이를 안은 젊은 부부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고 가족 단위로 찾은 경우도 많았다. 16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18일까지 사흘간 4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 일대에 들어서서 디에이치아이 개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가구 중 1690가구(전용면적 63~176㎡)가 일반 분양된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 최대 규모의 일반 분양 물량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 원으로 디에이치아이 개포의 분양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는 지난해 9월 개포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됐던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분양가(4160만 원)와 동일한 가격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에이치아이 개포의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하는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모델하우스 곳곳에는 ‘위장 전입 작권조사를 실시한다’는 화면이 계속 보여졌다.



“디에이치아이 개포”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방문객이 줄지어 서 있다.

이처럼 방문객이 몰린 것은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84㎡A형의 경우 12억1300만 원부터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인근 지역의 시세를 감안할 경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펜트하우스로 조성되는 173㎡ 모델의 경우 북중으로 구성돼 2가구가 거주하기에 충분한 설계를 보여줬다. 구성형 기자 carlove@

견본주택을 찾은 A 씨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각해 자녀들과 함께 살 것”이라며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청약을 넣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디에이치아이 개포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양재동 226번지) 양재 화물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재산권 침해하는 과잉행동”... “지대·매매차익은 불로소득” 정부 改憲案으로 다시 불붙은 ‘토지공개념’ 논란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21일 전후로 발의하는 가운데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강화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격렬하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에도 이 개념은 녹아 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공개

념을 토대로 한 입법 지침이 되고 있다. 실제 노태우 정부는 1989년에 헌법 제122조를 토대로 토지조과이특세, 개발이익 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폐기된 상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정확히 명기해 향후 시행하는 강력한 토지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을 피해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강화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제기된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면 정부가 임의대로 사유 재산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운영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도 투기와 빈부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운용의 묘를 살려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토지공개념 강화는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과잉 행동”이라고 말했다. 반면 토지공개념 강화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산권이란 열심히 일하고 생산해 만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토지를 통한 지대소득과 매매차익의 등 불로소득은 토지 없는 사람들의 재산에서 이 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강화는 오히려 재산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최영진의 현안진단

정부는 조이는데 서울시는 푼다? 위험스러운 ‘2030 생활권 계획’

한쪽에서는 주택시장을 규제하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올리는 모양새다. 정부와 서울시 얘기다. 정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규제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아파트값을 부추기는 주변으로 끄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했다. 그래서인지 각종 처방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요즘 진정되는 모습이다. 물론 매매가 오름 폭이 좀 낮아졌다는 소리이지,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이런 판에 서울시는 최근 균형개발 명목으로 토지 용도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겠다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의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종상향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종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높아져 그만큼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 3층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인 용적률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최대 800%까지 높아진다. 상업지로 바뀌면 건축 연면적이 2~4배로 늘어난다는 말이다. 땅값은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한다. 해당 지역 땅값이 급등해 팔자를 고치게 된다.

팔자 고치는 땅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 주변 지역 땅값이 들쭉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 수 있다. 땅값이 뛰면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주거지역을 상업지로 풀어주면 이곳에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게 뻔하다. 요즘 시장 분위기로 봐서 상가나 빌딩을 지어서는 재산을 맞추기 어려워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을 할 것이라는 소리다. 서울시가 마련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보자. 서울을 5개 권역 생활권과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 육성 발전시키는 게 주요 사안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권에 종상향 혜택을 많이 줘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간단히 말하면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소리다. 기반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뒤진 강북권을 강남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다. 뒤집어 생각하면 강북권 부동산 가격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관련 지역에 투자바람이 거셀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 곳곳에서 개발 열기가 뜨거워지면 부동산 시장도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서울시 도시 관리 정책은 정부가 애써 잡아 놓은 주택시장을 흔들며 놓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종상향 얘기가 나오기만 해도 땅값은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주택시장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옥죄고 서울시는 푸는 행태가 벌어질 듯싶다.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건지 헷갈린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강남-북 균형을 맞추려는 서울시 도시관리 방안은 좀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대가자 choibak14@

금주의 분양캘린더

3월 넷째 주는 전국에 1만916가구가 분양한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아이 개포’ 등 8429가구, 지방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종파크’ 등 2487가구를 공급한다. 중도금 대출, 중복 청약이 막힌 상황에서 강남, 과천 등 유망 사업장 청약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19(월)	접수	경기	수원시	원천동	광교더샵레이크시티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PARK 1순위 (당해지역)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아이개포 1순위 (당해지역)			
				인천 계양구 서운동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 1순위			
				경북 상주시 북룡동	상주한라하우젠트 1순위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우리뷰2차 1순위			
				제주 제주시 연동	제주연동중흥S-클래스 1순위			
				오픈	전남	무안군	심향읍	남약심향파라뷰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PARK 1순위 (7/티지역)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아이개포 1순위 (7/티지역)
3/21(수)	접수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 1순위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빌드 1순위 (당해지역)				
			인천 계양구 서운동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 2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종파크(A5) 1순위				
			강원 춘천시 온의동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1순위				
			경북 상주시 북룡동	상주한라하우젠트 2순위				
			전남 무안군 심향읍	남약심향파라뷰 ◆ (-3/26)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우리뷰2차 2순위				
			제주 제주시 연동	제주연동중흥S-클래스 2순위				
			3/22(목)	접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트릴PARK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두산위브트레이지움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신도시모이리레드메도포레(EAA10)							
인천 계양구 직전동	직전역브라운스톤계양스카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평코오롱하늘채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화성파크드림							
경남 창원시 회원동	e편한세상창원파크센트럴(1단지)							
경남 창원시 회원동	e편한세상창원파크센트럴(2단지)							
충북 청주시 수곡동	청주더샵퍼스트파크							
3/23(금)	접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PARK 2순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아이개포 2순위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 2순위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빌드 1순위 (7/티지역)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종파크(A5) 2순위				
			강원 춘천시 온의동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2순위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푸틴 4기 74% 지지율...GDP 올라갔지만 살림살이 더 팍팍

‘차르’의 최대 과제는 스파이 독살로 서방제재 연장
작년 플러스 성장 전환에도 장기적으로 불확실성 커져
공헌했던 5대 경제국 도약과 빈곤을 절반 축소 가시발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예상대로 압승했다. 이에 러시아 경제의 성장 전망과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여론조사센터(VЦИОМ)는 이날 투표가 끝난 후 출구 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이 7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대선 때 득표율 64%를 훌쩍 웃돈 수치다. 2위를 차지한 후보는 공산당의 파벨 그루디닌으로 지지율은 11%에 그쳤다.

4선 연임으로 최소한 2024년까지 권력을 쥐게 될 푸틴은 그동안의 정책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UBS 등 글로벌 투자는 행렬은 러시아의 부패 문제와 저성장, 서구의 제재 등 여러 요인에도 단기 경제 전망은 밝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통계국은 작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 대비 1.5% 성장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UBS는 러시아의 GDP가 향후 2년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의 다이아나 아모아 채권 매니저는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지출도 탄탄하게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며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 행정부가 재정 지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루블화 가치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며 유가도 안정된 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점쳤다.

다만 푸틴 정부가 안고 있는 큰 과제는 서방의 제재와 저유가에 따른 수년간의 경제난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서방의 계속된 제재를 받고 있다. 12일 유럽연합(EU)은 9월 15일까지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적자 150명과 38개 회사에 대한 여행 제한 및 자산 동결 조치가 연장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된 상태다.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이종간첩 독살 시도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됐다. 영국은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기로 했고,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자산 동결 조치도 발표했다. 그라자 17일 러시아도 영국 대사관 직원 23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한다고 응수했다. 향후 영국은 대러 제재와 관련해 EU와 미국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초 연설에서 국내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향후 6년 뒤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마네슈 광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지지자들이 푸틴의 4기 집권을 축하하고 있다.

모스크바/AFP연합뉴스

의 자산 동결 조치도 발표했다. 그라자 17일 러시아도 영국 대사관 직원 23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한다고 응수했다. 향후 영국은 대러 제재와 관련해 EU와 미국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초 연설에서 국내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향후 6년 뒤

빈곤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천명했다. 러시아는 1억4000만 인구 중 약 2000만 명이 월 소득 180달러(약 19만 원) 이하의 빈곤층에 속한다.

경제 컨설팅 업체인 마크로어드바이저리의 크리스 웨버 수석 애널리스트는 “러시아 유권자들은 자신의 생활고가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정

부에 무언가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푸틴은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국으로 올려서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서방의 제재와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베리스크마프레트르프트의 아라 맥도웰 애널리스트는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러시아의 성장 전망은 정체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체제 유지에 집중하고자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스트는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러시아의 성장 전망은 정체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체제 유지에 집중하고자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치민 기자 aaaa3469@



인도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조마토의 배달원들.

사진제공=조마토

인도도 배달의 민족이었어...온라인 음식배달 급성장

1년새 주문 두배 폭발
스마트폰 늘어 희망적

인도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아침과 야식에 이르기까지 음식 배달 문화가 퍼지는 가운데 온라인 음식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 외에도 음식 배달 주문이 크게 늘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퀴츠가 보도했다. 인도 컨설팅 회사 레드시에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한 음식 배달 건수는 약 4만5000건이었으나 12월에는 약 8만5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침 식사와 스낵, 야식까지 다양한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다.

인도 내 일일 온라인 음식 배달 주문량은 2016년 20만 건에서 2017년 45만 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2020년에는 200

만 건에 도달할 전망이다. 바히브 아로라 레드시에어 부사장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 학생들이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이용했다”면서 “특히 심야 배달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온라인 식품 배달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에 전년 대비 30%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

로 꼽혔다. 식당업계 성장률 11%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인도 온라인 식품 배달 산업의 시장 규모는 7억 달러(약 7479억5000만 원)이며 2021년에는 약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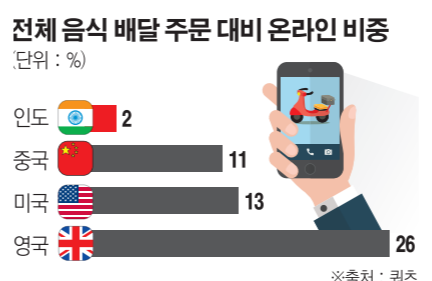
향후 성장 여지도 많다. 인도의 온라인 음식 배달 주문은 전체 음식 배달 주문의 2%에 불과하다. 영국 26%, 미국 13%, 중국 11%에 비교하면 비중이 매우 작은 편이다. 인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분석된다. 주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도 벵갈루루와 델리, 뭄바이, 푸네, 콜카타,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등 7개 도시에 집중돼 있다. 이들 7곳이 전체 산업의 87%를 차지한다. 13억 인구 중 26%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

로 꼽혔다. 식당업계 성장률 11%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인도 온라인 식품 배달 산업의 시장 규모는 7억 달러(약 7479억5000만 원)이며 2021년에는 약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여지도 많다. 인도의 온라인 음식 배달 주문은 전체 음식 배달 주문의 2%에 불과하다. 영국 26%, 미국 13%, 중국 11%에 비교하면 비중이 매우 작은 편이다. 인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분석된다. 주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도 벵갈루루와 델리, 뭄바이, 푸네, 콜카타,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등 7개 도시에 집중돼 있다. 이들 7곳이 전체 산업의 87%를 차지한다. 13억 인구 중 26%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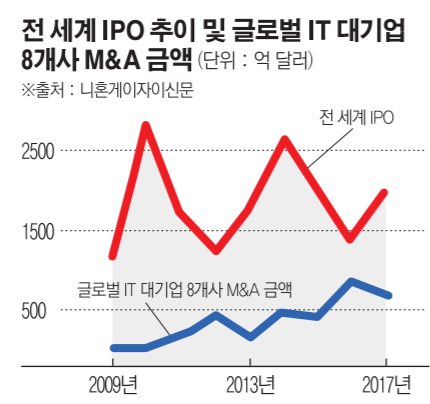
커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온라인 주문의 80%가 앱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인도 업체 조마토와 스위기가 지난 5년간 투자받은 금액만 총 7억 달러로 인도 전체 레스토랑 산업이 투자받은 8억4300만 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우버는 지난해 5월부터 우버이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인도판 우버’ 불리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푸드판다를 인수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IT 대기업에 주도권 뺏겨 IPO 규정 유명무실 위기

세계 거래소들 딜레마
소프트뱅크父子상장 위해
도쿄거래소 정책 뒤집을 판
중국도 알리바바 유치 경쟁



전 세계 증권거래소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IT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찾아 시장을 선별하는 등 기업공개(IPO)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거래소들의 IPO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위기에 놓였다고 1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분석했다.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유망 기업들을 다른 시장에 빼앗길 수 있다. 게다가 IT 대기업들이 상장 이전 유망 스타트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IPO 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 거래소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정 완화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규정을 너무 완화하면 상장사 지배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시장 자체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증권거래소를 산하에 두고 있는 일본거래소그룹의 한 임원은 “이유 없는 ‘부자상장’을 인정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SBG)이 이동통신 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상장 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도쿄증권거래소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동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IPO는 약 2조 원(약 20조1764억 원)으로, 도쿄증시에서 모처럼 초대형 상장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도쿄거래소

내부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부자상장은 서구에서는 거의 없는 일본 특유의 자본정책이다. 이는 모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서 자회사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도쿄거래소도 해외 투자자들의 비판을 의식해 그동안 부자상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16년 부자상장을 한 업체는 총 270개사로, 10년 전 정점에서 약 30% 감소했다.

그러나 1개월 전 SBG의 발표로 기존 정책기조를 뒤집어야 할 형국에 놓인 것이다. 그렇다고 부자상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프트뱅크가 런던증시에 단독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국 대기업을 포기하면 세계에서 도쿄증시에 대한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IPO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중국 증권당국도 규정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홀딩스와 텐센트, 바이두 등 자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해외에만 상장해 정작 중국 투자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의미있는 직업 찾으려던 호킹...현실적 방법은

CEO 라운지
“現 직업서 좋아하는 부분 찾아 보상받을 수 있는 일 선택하라”

지난주 우리 곁을 떠난 ‘물리학계의 거장’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직업과 일에 대해서도 교훈을 남겼다. 그는 2010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킹 박사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며 “그것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남긴 직업 철학이 과연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천 방법 등을 영국 BBC방송이 소개했다. 조지행동과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옥스퍼드대의 셸리 메이틀리스 교수는 단지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일을 선택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틀리스 교수와 키라 샤브람 미국 워싱턴대 경영학 교수는 지난해 북미 지역 동물보호소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이들 직원 중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동물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선택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발생했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은 추가 근무를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 결과 많은 이가 탈진하거나 좌절했으며 일부는 직장까지 그만뒀다. 동물을 부덕하게 간략사시키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등을 직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겼다.

여전히 메이틀리스를 포함한 전문가 대부분은 일에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미국심리학회지에 실린 하버드대 논문은 따르면 목적이 크고 적용에 상관 없이 자신의 일이 의미 있고 발전해 나간다는 점을 느끼면 일터에서의 행복에 기

여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뉴욕대의 아나 트레허너 교수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직업 대신 보다 안정적인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택한다”며 “JP모건체이스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전한 베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행동 분석 전문가인 에이미 프레스니에프스키 예일대 교수는 자신의 현재 직업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고르고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메이틀리스 교수의 조사에서도 동물보호소 직원 중 일부는 사육사와 애완동물 훈련사 등 동물과 관련된 다른 직업으로 옮겼다.

또 프레스니에프스키 교수는 “일부 사람은 직업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며 “이는 너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은 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채권시장 외국인 투자 유치 이끈다

중국 인민은행 새 총재에 오른 이강 부총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사진) 부총재가 저우사오촨 총재의 뒤를 이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이 부총재가 차기 인민은행 총재로 지명됐다고 전했다. 이 부총재는 영어에 능통하며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15년 넘게 인민은행을 이끌며 최장수 기록을 남긴 저우사오촨 현 총재는 은퇴한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부총재 지명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19일 임명안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기 인민은행 총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시진핑의 경제 책사' 류허 중앙재정영도소조 주임은 부총리로 승격될 예정이다. 류 주임은 인민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을 관리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 '남부 2'로 뚝뚝이 온 이 부총재의 지명으로 중국 금융정책은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평가다. 이 부총재는 지난 1년 동안 급격한 부채 증가를 막고 위험

美에서 박사 취득 금융 전문가
대출 억제 정책 기조 유지할 듯
15년 이끈 저우 총재는 은퇴

한 대출 관행을 억제했던 인민은행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및 위험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최근 중국 지도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들의 권한 일부를 인민은행으로 넘겼다.

FT는 이 부총재가 중국의 환율시장을 자유화하고 자본시장, 특히 채권시장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와라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이강은 중국 내외의 학계와 정책 분야에서 존경받는 통화정책 전문가"라면서 "그의 지명은 저우 총재의 유산을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한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오랫동안 대출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은행시스템을 사용했으나 중국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부총재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총재는 문화대학원 이후 중국이 대입 시험을 다시 시작했을 때 대학에 진학한 1세대 중 한 명으로 1980년 베이징대를 졸업했다. 그는 미국 미네소타주 웹

라인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디애나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WSJ는 그의 유창한 영어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기타 주요 국제 금융회의에서 정책을 논하고 대화에 참여하기에 유리한 요소라고 전했다. 이강은 2008년부터 인민은행 부총재를 맡았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외환관리국(SAFE) 국장으로도 일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버디쇼' 매길로이, 짜릿한 역전승 티샷 흔들린 우즈 공동 5위 머물러

PGA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매길로이 4R 최종18언더파 정상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미국)가 역전 우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냈지만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사진)의 벽을 넘지 못했다.

16번홀(파4). 우즈는 페이드를 걸러 티샷을 했으나 왼쪽으로 밀려 OB(아웃 오브 바운스)가 났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보기가였다. 이어 17번홀(파3)에서도 티샷이 왼쪽 벙커에 빠져 보기가 이어졌다.

우즈가 '무빙데이'에서 샷 감각을 끌어올리며 최종일 반전을 노렸지만 우승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우즈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파72·7419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총상금 890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합계 10언더파 27타(68-72-69-69)로 공동 5위에 머물렀다. 전날 공동 10위였다.

전반에 2타를 줄인 우즈는 후반 들어 10번홀에서 버디를 쳤던 뒤 12, 13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골라내며 공동선두였던 매길로이와 헨릭 스텐손(스웨덴)에 1타차로 간격을 좁혔다. 12번홀(파5·555야드)에서 아이언 2번으로 세컨드 샷한 볼이 그린 왼쪽 벙커에 빠졌으나 세번째 샷을 핀에 붙여 버디를 잡아냈다.

하지만 매길로이가 13번홀부터 4개를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도망가는 사이에 우즈는 티샷이 흔들리며 추격에 찬물을



끼였었다. 우즈는 "16번홀부터 버디를 잡아내면 연장전까지는 가겠다고 생각했다"며 "티샷이 흔들리면서 원하는 버디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이날 보기없이 버디만 8개 골라내 합계 18언더파 27타(69-70-67-64)를 쳐 16번홀(파5)에서 이글을 성공시키며 맹추격하던 브라이슨 디섬보(미국)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매길로이는 15번홀에서 그린 밖에서 집샷한 볼이 그대로 홀로 사라지며 버디가 되면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18번홀(파4)에서 우승벙커를 밟는 12m 버디 퍼트가 들어갔다.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첫 우승한 로리는 이번 우승으로 PGA투어 통산 14승을 기록했다.

안병훈(26)은 이날 2타를 잃어 합계 6언더파 282타를 쳐 공동 16위로 밀려났고, 강성훈(31)은 1언더파 287타로 공동 58위에 머물렀다. 제이슨 데이(호주)는 5언더파 283타로 공동 22위에 랭크됐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곽정숙 인권상' 김예원 변호사

곽정숙인권상 첫 수
상자로 김예원(36·사
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선정됐다.
곽정숙 기념사업회는
19일 '김 변호사가 장
애인 인권침해 사건 법률지원 등으로 장
애인 인권활동에 헌신을 다 해 첫 수상자
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곽정숙 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였던 곽정숙
(1960~2016) 전 의원의 뜻과 정신을 기
리기 위해 제정됐다.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2012년부터 2년동안 재판법인 동전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맡았던 일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공익 소송이다. 2014년 엔 파손된 장애인 노동자의 의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한 쪽 다리의 의족은 '물건'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사(2009)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2011)를 취득했다.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백미선 기자 only@**

LG전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육성"



16일 서울 양재동 서초R&D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박일평 LG전자 CTO 사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에 앞장선다. LG전자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6일 서울 양재동 서초R&D캠퍼스에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협약에 따라 공개형 버전의 웹OS 소스코드를 오픈하기로 했다. 웹OS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웹OS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웹OS는 LG전자가 스마트 TV,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 적용하고 있는 독자 플랫폼이다. 또 LG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

원이 추천한 스타트업 가운데 유망 업체를 선정해 웹OS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 오픈소스서버, 오픈 등 글로벌 오픈소스 행사에도 스타트업과 함께 참가할 계획이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역시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인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연금정책국장 류근혁 △대변인 김현주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 박급렬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장재혁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항공산업과장 박명주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벤처혁신기반과장 정기환 △과장직위 승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배창우

◆조달청 △서기관 승진) △시설총괄과 오덕기 △전자조달관리과 정길용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민간협력담당관 강신아 △과장급 전보) △경제제도개선과장 김태호 △한국법제연구원 고응유직 정혜영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감사 이병률 △석좌교수 김호동 △석좌교수 송호근 △약학대학 교무부학장 성상현 △보건의과학원 학생부위원장 윤종식 △치의학대학원 교무부위원장 권호범 △보건의료소장 김지원

◆조선영상비전 △대표이사 김홍진

학술원 회장에 김동기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은 16일 총회를 열어 김동기(84·사진) 고려대 명예교수를 37대 회장으로, 박상대(81) 서울대 명예교수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고려대에서 3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1960년대 마케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미국식 마케팅을 도입한 유행과 중 한 사람으로 '현대마케팅원론' 저자이기도 하다. 한국경영학회 회장,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 등을 지냈다.

박 부회장은 분자세포생물학자로서 염색체 및 DNA 상해와 회복기작 연구를 주로 했다. 서울대 교수와 한국분자생물학회 회장,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은령 기자 pepe@**

이의준 여경협 상근부회장 취임

이의준(사진)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자리를 옮겨 1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 부회장은 여경협 이사회를 통해 단일 후보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돼 중기부의 승인을 받고 이번에 공식 취임하게 됐다. 지난 7개월간 공식으로 있던 여경협 상근부회장 자리는 매워지게 됐다. 이 부회장은 여성경제인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정부,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 등 협회 업무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포스코대우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립종합병원에서 현지 안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캠프를 실시했다. 사진제공 포스코대우

포스코대우, 우즈베키스탄 눈 질환 주민 1만명 무상진료

포스코대우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립 종합병원에서 현지 안(眼) 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캠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대우 의료캠프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립 종합병원에서 실시했다. 포스코대우는 이번 의료캠프 기간 백내장, 시력저하 등에 시달리는 현지 주민 1800여 명에게 무상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그중 1000여 명에게 무상 진료를 실시하고, 150여 명에게는 백내장 수술 등 안과 수술을 지원했다. 또한, 돋보기와 시력 교정용 안경 700여 개를 제공했다.

포스코대우는 2014년부터 의료캠프를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 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은 총 1만여 명에 이른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부음

▲전병현(영진전문대 교수)·병기(자유영양)·병용(매일신문 구미감전혁신도시 담당 기자)·병규(회사원)·일(이수화학 재직)씨 모친상 = 18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0일, 053-956-4445

타스칼리지(강사)씨 부친상 = 18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11시, 02-2227-7572

▲이덕희씨 별세, 최동환(전 서울 경기교 교장)씨 모친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2-3010-2236

▲정낙경(경기 애화몽 회장)씨 별세, 오복례씨 남편상·친회(SK하이닉스 근무)·미향(경기 머물고싶은펜션 대표)·준희(경기 웰로와거문고 대표)·석희(양평 펜션협회 회장)씨 부친상 =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3010-2230

김도연, 21년 만에 女 마라톤 신기록

동아 국제마라톤 2시간25분41초

한국 여자 장거리 간판 김도연(25·K-water·사진)이 한국 여자마라톤의 셋별 로 자리매김했다.

김도연은 18일 2018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9회 동아마라톤에서 21년 만에 한국 여자마라톤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으로 끝나는 42.195km 레이스에서 김도연은 2시간25분41초에 결승 타이프를 끊었다. 이는 권은주가 1997년 10월 세운 2시간26분12초의 종전 한국 기록을 31초나 앞당긴 신기록이다.

김도연은 2월 일본 가가와현에서 열린 '제72회 가가와 마루가메 국제하프마라톤'에서 1시간11분00초를 기록해 2009년 임경희가 작성한 한국기록 1시간11분14초를 14초 앞당겼다. 지난해 7월에는 5000m 한국신기록(15분34초17)을 세웠다. **마라톤 폴코스까지 신기록을 달성하며**



김도연은 3개 종목에서 한국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김도연은 이날 여자 국내부 1위, 국외 선수 포함 종합순위 5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했다. 국내 1위에 오른 김도연과 남자부 1위 김재훈(한국전력공사·2시간13분24초)은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베트남 '도이머이' 기초 담은 카이前 총리 별세

베트남 '도이머이(개혁)'의 기반을 다진 판반카이 전 총리가 17일(현지시간) 호찌민시 외곽에 있는 자택에서 숨졌다. 향년 85세.

이날 ABC뉴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고향인 호찌민시 외곽 쿠치에서 사망했다. 카이 전 총리는 1985~1989년에는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일했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베트남에서 총리직을 수행했다. 총리로 재직할 시 그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가 총리로 일했던 2000년 베트남은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에 체결했고, 2006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2005년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



령과 회담해 1975년 베트남전 이후 미국을 방문한 첫 베트남 지도자로 기록됐다.

카이 전 총리의 경제 고문이었다던 판 치란은 그를 베트남에서 가장 개혁 지향적인 총리로 꼽았다. 판 전 고문은 "베트남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소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그는 훌륭한 정치인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치약도 TS가 만들면 다릅니다.

Trust

SINCE 2010



☑ 의약외품

TS착한치약

TS TOOTHPASTE

7無첨가

(SLS/SLES/파라벤/볼소/트리클로산/사카린/CMIT·MIT)



TS착한치약





공병호의 독서산책

토니 주트 '포스트 워 1945~2005'

모든 것은 흐른다. 현재와 미래를 보고 살기도 힘들어...

역사학자 토니 주트가 쓴 '포스트 워 1945-2005'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번영과 쇠락을...

날 정도로 가혹한 상황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전쟁이 끝나기 이전부터 유럽 대륙에는 계획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친다...

임병화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핀테크 투자 더 다양해져야

대륙별 핀테크 투자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투자를 주도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대륙별 특징은 투자 분야의 차이이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권장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경우 시장을 선도했던 중국의 규제 강화로 2017년에는 핀테크에 대한 신규 투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다...

인 대출 시장이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CEO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효과적 내부 통제 및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 戰後 유럽

1971), 제2권은 퇴장 송가(1971-1989)와 몰락 이후(1989-2005)로 구성됐다.

역사책을 다할 때 독자들은 나름의 필요와 시각을 갖고 읽는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에 뭔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바람에 부분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책이다...

전쟁이 종전으로 치달을 무렵까지 독일은 전성기를 누렸는데, 저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너무나 번영한 나머지 독일의 모든 민간인은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물질적 비용에 대한 느낌을 거의 갖지 못했다..."

1947년 유럽을 휘감은 공포의 장막으로 유럽 대륙은 마치 악은 괴악처럼 스탈린의 손아귀로 들어갈 상황이었다. 미국은 서유럽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동원한 마셜플랜(1948-1951)을 실천에 옮긴다...

"동유럽의 공산화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중부 유럽과 동유럽은 토착 민주주의 전통이나 자유주의 전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해방 전후사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볼 만한 고전급 역사서다. 역사를 읽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반복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도선부(水到船浮) 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17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나올 때 '수도선부(水到船浮)'라고 쓴 액자가 카메라에 잡혔다...

이날 이후, 이화면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를 방송할 때 자료화면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액자 '水到船浮'는 대부분의 국민들 눈에 익게 되었다.

본인이 직접 써서 벽에 걸어 둔 것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2013년 신년사에서 '水到船浮'를 언급했고, 그해 2월 임기를 마치며 국립현대미술관을 참배했을 때 방명록에도 '水到船浮'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주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 순리대로 하나씩 이루다 보면 천만 가지 일도 다 이룰 수 있으니, 순리란 바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뜨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水到船浮'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水到船浮'에 담긴 '순리'라는 의미는 곧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뜻한다. '事必歸正'은 공심은 데 콩 나고 팔심은 데 팔 난다는 뜻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저모 보이스포싱에 9억 날린 70대... "당한 사람 잘못? 속인 사람 잘못?"



70대 노인 A 씨가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포싱(전화 금융사기)에 속아 9억 원을 날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보이스포싱 피해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얼마 전 '02-112'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A 씨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됐으며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틀에 걸쳐 금융회사 3곳에서 정기예금과 보험 9억 원어치를 썼고, 이 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A 씨가 거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송

금하려 하자 수상히 여긴 은행 장구직원이 사연을 물었지만, A 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전직에게 사업 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9억 원은 사기범에게 송금됐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 소속, 직위, 이름을 묻고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며 "전화로 정부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특히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포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네트즌은 보이스포싱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당황하다 보면 당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kyhs****'는 "보이스피싱 일당은 상대방의 이름 등 정보를 알고 전화를 하다 보니 노인들은 더 속기 쉽다. 대부분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 적발이 쉽지 않은데 통신사는 이런 보이스포싱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shar****'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이스포싱은 계속 전화하는데 이를 적발하는 시스템은 제자리. 결국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피해 구제에도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Advertisement for HD2 security systems. Features include: 2중 3중 철통보안으로 빈틈이 없다! (2x3x heavy-duty steel security, no gaps!), 지문인식 & 터치패드 철통 보안시스템 (Fingerprint & Touchpad steel security system), 사용자 비밀번호 (User password), 지문 등록 (Fingerprint registration), 이중 잠금기능 (Double lock function), 옛보기 방지기능 (Anti-peek function), 경보기 (Alarm), 마비기능 (Stun function), 감침기능 (Anti-jamming), 저전압 알림기능 (Low voltage alert), and 내화성능 (Fire resistance).

데스크칼럼

양창균
정치경제부장



G2 覇權전쟁이 낳은 貿易전쟁

역적자 규모를 1000억 달러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흑자 규모는 더 늘어나는 모양새다.

올해 1~2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26.6% 늘어난 694억 달러, 수입은 12.0% 증가한 265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429억 달러로 확대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4000억 달러(427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보호무역 조치도 더 거칠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기술·통신 분야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품목 대상도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인 정보기술(IT) 분야뿐만 아니라 의류 등 100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일부 중국인 비자 제한 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올해 1월 1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매각한

데 이어 항공기와 대두·수수 등 일부 농산 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할 공산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G2(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은 1930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의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제 31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허버트 C. 후버(Herbert Clark Hoover)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업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면서 보호무역 정책에서도 상당히 닮아 있다. 당시 후버 대통령은 2만 개가 넘는 수입품에 최대 59.1%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Smoot-Hawley)법'을 서명했다.

그러자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관세 인상 경쟁에 나서면서 보호무역은 심화했고, 무역전쟁은 격화했다. 이 여파로 국제 무역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가별로 보유한 외환은 금으로 바뀌어 떨어지면서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도 순간 무너졌다. 대공황의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대전의 씨앗까지 잉태했다.

'예정된 전쟁'의 저자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대결을 17번째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으로 보고 있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종전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와 신흥세력인 아테네의 갈등 구조를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개념이다. 분명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중국과 세계경제 패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의 대가인 찰스 킨들버거(C.P. Kindleberger)는 그의 저서 '대공황의 세계 1929-1939'에서 세계 대공황이 발발한 이유를 당시 패권 경쟁을 벌이던 영국과 미국이 모두 세계경제 안정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싸움과 흡사하다.

G2 간의 무역전쟁이 자칫 세계경제를 혼돈에 빠트렸던 대공황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뿐이다.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1부 차장



대통령까지 속였던 GM

5년 전이었던 2013년 2월, 한국지엠(GM) 부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GM 해외사업부팀 리 사장은 "한국지엠에 제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약 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지엠이 출범 이후 글로벌 GM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미래에도 그 역할이 지속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꽤 고무적이었습니다. 당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시절이었는데도, 걸출한 경쟁 상대가 등장하면 그 시장은 자연스레 경쟁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덴 애커슨 GM 회장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GM은 8조 원의 투자는커녕 높은 이전 가격을 앞세워 손익을 빼냈고, 과도한 이자 장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시장 철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GM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 신차 생산을 배정하고 한국에 남겠다"고 합니다. 그레 봤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5년, 라이프사이클(모델 교체 주기)을 감안해도 7년 정도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지금 GM이 제시하는 조건들 모두 단기 전략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차 값이 싸수록 현지생산 현지판매가 원칙인데도, 현재 한국지엠이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차의 90% 이상이 대중차입니다. 비싼 노동력을 투입해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GM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으면 딱 그만뒀던 공장 운영을 더하고 빼쳐나가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입니다.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차입금 담보설정과 이자율을 조정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GM에 "왜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느냐"를 묻기보다 GM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들은 정치권과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며 "착한 한국 시민이 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고작 보름 앞둔 5월 말에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것도 치밀한 전략입니다. 전 세계에 기자까지 공장 폐쇄와 사업 철수를 단행했던 만큼 이 부분에서 노후가 많 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또 후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는 한국지엠에 제한적이나마 돈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시간 벌기에 나섰다던 그 기간에 GM의 체질을 바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냉혈자본의 전류를 희망하기보다 애초 우한 이자 장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디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시장 철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GM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 신차 생산을 배정하고 한국에 남겠다"고 합니다. 그레 봤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5년, 라이프사이클(모델 교체 주기)을 감안해도 7년 정도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지금 GM이 제시하는 조건들 모두 단기 전략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차 값이 싸수록 현지생산 현지판매가 원칙인데도, 현재 한국지엠이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차의 90% 이상이 대중차입니다. 비싼 노동력을 투입해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GM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으면 딱 그만뒀던 공장 운영을 더하고 빼쳐나가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객석

최금실 핑크원더 대표



꿀피부로 살아가는 방법

뷰티멘토로서 매일 아침 상담을 해주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 누구보다 멘티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패션학과 졸업 후 패션디자이너로 밤낮없이 지내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극심한 아토피였다. 아토피로 얼굴 전체가 진물과 딱지로 뒤덮여 대인기 피장까지 왔다.

30대 중반인 지금 나의 모습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 누군가의 뷰티멘토가 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행복한 직업이다.

대학 졸업 후 다른 동기들보다 사회생활을 빨리 했던 나는 높은 연봉과 성취감을 일찍 맛보았다. 회사에 빨간 딱지가 붙기 전까지 말이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결과 돌아온 것은, 매년 1년치 월급과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뿐이었다. 피부는 더 악화한 상태였다. 여러 아토피 제품들을 써보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스스로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고 알맞은 제품, 원료를 찾기까지 1년이 걸렸다. 이렇게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부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뷰티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밤새 상담을 해주고, 휴가 중 유력 철도 안에서도 상담을 진행했던 이유는 그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8여 년 동안 뷰티멘토로 활동하면서 늘 고객들에게 말하는 것은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피부도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이다.

아너뷰티의 시작은 바로 '물'이다. 오늘부터 차가운 음료를 끊고,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길 권유한다. 그러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습관을 만드는 데 66번의 반복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딱 66번 오늘부터 해 보길 바란다.

책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나는 누구를 위해 행복해야 하는가?"이다.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상 후 물을 마시는 하루, 건강에 신경 쓰는 하루를 시작할 기 바란다.

기자수첩

남주현 기업금융부/jooh@



지방선거 테마주의 유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주식시장에서 관련 테마주가 들쭉였다. 차기 유력대권 주자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변하자 관련주는 고꾸라졌다. 하지만 반자리를 채운 건 정치라이벌로 분류되는 이재명 성남시장 테마주였다.

증시에서 유력 정치인의 구분은 쉽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굵직한 정치인은 모두 당사자와 함께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테마주가 있다.

테마주는 그 대상이 정가에서 급부상할 때마다 같이 웃었다. 하지만 경선 실패, 후보 사퇴, 정치 은퇴의 비운을 맞이할 때면 투자자 역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야말로 도박판인 셈이다.

테마주로 언급되는 이유도 황당하다. "해당 기업의 임원이 친인척이어서", "대표이사과 고향이 같아서" 등 주장 상승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유력 정치인의 고향에 큰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련주로 엮이기도 한다.

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 상장사 대부분은 침묵한다. 심지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마저 "별도로 공시할 내용이 없다"는 회사가 다수였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부정할 경우 수급과 지명도에서 손실이 많다"고 말한다. 국내 현실에서 민감한 소재인 정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하지만 진짜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테마주는 기업의 모멘텀과 전혀 상관이 없다. 사실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을 꼽자면 '작전세력'이다. 대상 정치인이 승승장구하더라도 언제나 '개미 탈기'의 위험성은 높다.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들의 유혹은 3개월 내내 계속될 것이다. 투자자 스스로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광고철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당신의 공부 역사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극명히 나뉠 것이다!”

일본 학계와 언론이 극찬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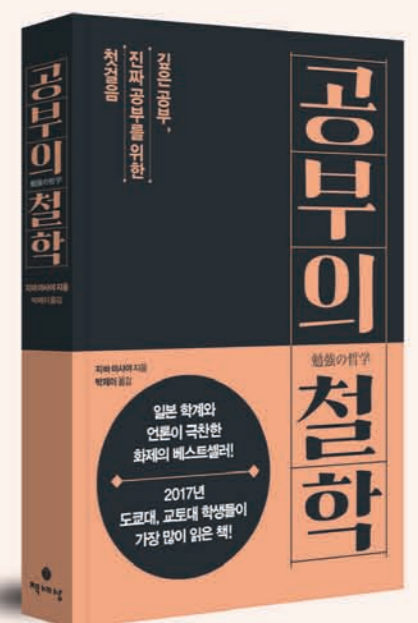
2017년 도쿄대, 교토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국내 전 서점이 주목한 화제의 신간

깊은 공부, 진짜 공부를 위한 첫걸음!
일본 사상계를 주도하는 철학자 지바 마사야가 이 시대 독학자들에게 헌정한 최고의 공부론!

공부의 철학

지바 마사야 지음 | 박재이 옮김 | 값 15,000원



아프리카로, 南美로... 배터리업계 '원료 확보' 총력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배터리 기초소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초소재 생산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광산 지분 참여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거나 차세대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1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 광물을 채굴하는 콩고 광산 기업 소미카(Somika SPRL)와 코발트 장기 계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발트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 기반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로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이 콩고에서 수출된다.

포스코와 삼성SDI도 함께 꾸린 컨소시엄이 9일(현지시간)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이 주관하는 리튬 프로젝트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칠레 생산진흥청은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삼성SDI-포스코 컨소시엄을 비롯한 중국 푸린, 칠레 몰리엣 3개사를 리튬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삼성SDI와 포스코는 575억 원을 투자해 칠레 북부에 위치한 메히요네스에 양극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법인은 칠레 정부로부터 리튬을 공급받아 2021년 하반기부터 연간 3200톤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인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와 NCM(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SDI와 포스코는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칠레에 추가 생산라인을 건설해 양극재 생산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콩고 광산업체와 배터리 핵심 원재료 '코발트' 수입 협상
포스코·삼성SDI 컨소시엄, 칠레 '리튬프로젝트' 최종사업자 선정
LG화학은 10억 투자해 황산니켈 생산업체 '켄코' 지분 10% 확보
SK이노베이션도 호주업체와 황산코발트·황산니켈 장기구매 계약

특히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사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올해 초 포스코는 세계 최대 코발트 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 계약을 맺고 2020년부터 중국 현지에서 연간 4600톤 규모의 전구체와 양극재를 생산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호주 광산업체 필라라와 연간 최대 24만 톤 규모 리튬 정광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연산 3만 톤 규모 리튬 생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포스코 계열사인 2차전지 양극재 제조사인 포스코ESM은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 회사는 올해 10월 말까지 149억5000만 원을 투자해 양극재 생산을 위한 소성로 등 부대설비를 확충한다. 신규 라인에 내년 초 가동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이자 음극재 제조사인 포스코켄텍은 최근 6·7호기 생산라인을 새로 가동,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2배인 1만6000톤으로 늘렸다.

삼성SDI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 중의 하나인 코발트 비중을 대폭 줄이고 니켈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배터리의 코발트 비중은 20%

를 상회하지만 하이니켈 배터리는 10%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 니켈 비중을 90% 이상 높였으며, 코발트 비중은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SDI는 폐후대포를 수거해 코발트 등 주요 소재를 재활용하는 '자원재생 사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G화학은 10억 원을 투자해 황산니켈 생산업체인 켄코(고려아연의 자회사)의 지분 10%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18년 중순부터 황산니켈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또한 조인트벤처(JV) 설립 등도 고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달 호주 배터리 원재료 생산업체 '오스트레일리아 마인즈(AM)'와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장기 구매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기반을 마련했다. 계약 기간은 7년으로, 6년 더 연장 가능하다. 이번 계약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20년부터 매년 호주 퀸즐랜드 스코니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황산코발트 1만2000톤과 황산니켈 6만 톤을 공급받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구매 물량이 배터리 사업 필요 물량의 90%에



SKI노베이션 연구원들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SKI노베이션

달하며,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생산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배터리 소재의 원천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종합기술원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 충전용량은 45% 많고 충전속도는 5배나 빠른 새로운 배터리 소재의 원천 기술인 '차세대 배터리 소재 그래핀 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배터리는 고속 충전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완전 충전에 1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그래핀 볼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는 12분이면 완전히 충전할 수 있었다. 또 전기차

용 배터리가 요구하는 온도 기준인 섭씨 60도까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KAIST는 신소재공학과 육종민 교수와 이정용 명예교수(전 기초과학연구원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 공동 연구팀이 리튬 기반 2차전지 음극 재료에 비해 저렴하고 수명이 긴 나트륨 기반 이온 전지용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2차전지 음극 재료 대비 수명이 1.5배 길고 가격은 약 40% 저렴한 나트륨 이온전지용 음극 소재 개발을 통해 나트륨 이온전지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연민 기자 yerin2837@

www.shinhaninvest.com
1588-0365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관심종목 금융광장 연금자산 인증센터 추천상품 나의 자산현황 간편이체 주요지수

쉬운 자산관리 시대가 활짝!

[신한아이알파]

누구에게나 쉬운 원스톱 자산관리 앱

복잡한 자산관리를 단 하나의 앱으로 신한금융투자자 자산관리의 새 시대를 엿보다

신한아이알파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이 중보에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상시콜 711-044330(2017.09.30~2018.09.30)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상담콜 17-8385(2017.09.30~2018.09.30)

프로들의 자산관리 | 신한금융투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MCE 2018'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무풍냉방 기술을 탑재한 '무풍에어퀵'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LG전자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모습. 사진제공 삼성전자·LG전자

삼성·LG전자 'MCE2018' 참가 '공조 B2B' 유럽시장 정조준

삼성, '무풍 에어퀵' 풀 라인업 공개 LG도 고효율·친환경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도 공조시스템으로 북미, 유럽 등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생활가전사업의 새 수익원을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공장과 대형 쇼핑몰, 사무실, 호텔 등의 냉난방과 공기 정화를 하는 공조 시설은 세계 시장 규모가 800억 달러(약 87조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3~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 최대 공조 전시회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MCE2018)'에 참가했다. 전 세계 2000여 개 업체와 1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린 이 전시회에서 양사는 지역 특화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유럽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데다 고효율과 친환경 등 업계 기술 트렌드와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의 공조 시장은 연간 250억 달러(약 26조6200억 원) 규모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고효율·친환경 기술과 제품 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진화하는 '종합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LG전자가 선보인 '썬 마브' 3세대 신제품은 가정과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난방 솔루션이다. 일반적으로 보일러가 가스,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 이 제품은 외부 공기에서 에너지를 얻어 따뜻한 물을 만드는 '공기열원식 히트 펌프(AWHP)'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2세대 모델 대비 난방 성능도 8% 업그레이드됐다. 유럽 에너지등급 A+++를 만족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크게 줄어들어 환경

친화적이다.

LG전자는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도 선보였다. 신제품 '멀티브이엠(Multi V M)'은 실외기의 설치 유연성을 대폭 키워 유럽 시장에 특화됐다. 이 제품은 유럽에서 덩치가 큰 실외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실외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와 열교환기를 통합하지 않고 각각의 모듈로 설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에서 상업용 에어컨까지 '무풍 에어퀵' 풀 라인업을 공개했다. 무풍 냉방은 빠르고 강력한 바람으로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 사용자가 원하는 쾌적 온도에 도달시킨 후 바람이 인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마이크로 흡을 통해 은은한 냉기를 균일하게 분포해 적정 온도를 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가정용뿐 아니라 1Way·4Way 카세트 등의 상업용 무풍 에어컨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무풍 냉방의 쾌적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무풍 체험존'도 운영했다.

또 삼성전자는 가정·호텔·오피스 등 사용 환경별로 전시 부스를 구성해 제품 사용 환경과 용도별 맞춤 공조 솔루션을 소개하고 IoT 기술을 B2B에 확대 적용한 빌딩 통합 관리 솔루션 'b.iOT'와 스마트 싱스 기반의 '스마트 홈'을 별도 부스로 마련했다.

두 회사는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점차 수요가 둔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B2B시장에서 수요를 확보해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B2B시장에 후발 주자로 진출한 삼성전자는 현지 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유통망 확보를, LG전자는 부품과 완제품을 모두 공급하는 두 트랙 전략을 경쟁력으로 앞세우고 있다.

오연민 기자 yerin2837@

타보니 가솔린·디젤·전기차 3색 매력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를 앞세운 자동차 산업의 새 패러다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세라 1세기 넘게 다져온 내연기관의 발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솔린 엔진은 대량생산 노하우와 값싼 원가를 앞세워 여전히 차 산업의 장악 중이다. 디젤 대비 원가가 낮아 여전히 신흥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디젤 엔진은 특유의 편지력과 폭발적인 힘, 뛰어난 연비를 바탕으로 막강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롭게 출시표를 던진 전기차는 공격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가솔린과 디젤, 전기차를 모두 고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상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공존을 경험하는, 최초로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한국 땅을 달리고 있는, 효율성을 끌어올린 가솔린과 디젤·전기차의 3색 매력을 본지 기자들이 직접 살펴보았다.

잘나가, 잘빠져...아반떼 아성 도전해볼 만

가솔린 기아자동차 '올 뉴 K3' 차로 이탈방지 등 편의사양도 수준급

누가 뭐라 해도 국민차는 현대자동차 '아반떼'다. 국내 판매량이 모든 걸 말해 준다. 아반떼만큼은 아니지만 기아자동차 K3도 동급에서 잘 팔리는 차다. 상품성이 대폭 개선된 '리틀 스타링'인 '올 뉴 K3'가 출

시돼 준중형 시장의 지형이 바뀌지도 모르겠다. 아반떼AD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2030 세대가 첫 차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차급은 준중형이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지만 많은 이들이 현대차 '아반떼'를 알아본다. 가성비와 좋은 무난해서다. 실제로 아반떼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해왔다. 상품성도 훌륭하다는 평가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올 뉴 K

3'는 아반떼의 아성에 도전장을 제대로 내밀었다.

최근 '올 뉴 K3' 노블레스 트림의 풀옵션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왕복 170km를 주행해 봤다. 차를 탈 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액셀을 밟을 때의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올 뉴 K3'의 첫 느낌은 '잘 나간다'였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GDI(가솔린 직분사) 엔진에서 벗어나 MPI 기반으로 동력계를 꾸민 것이다. 이로 인해 출력은 이전에 비해 17마력(140마력→123마력) 줄었다. 다만 기아차는 중저속 출력이나 반응성 등을 보완해 성능 저하에 따른 주행감각을 보전했다.

주행 중 답답함은 없었다. CVT 변속기 덕에 변속 충격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웠다. 자동변속기

모사 패턴이 적용돼 마치 일반 변속기와 같은 감각을 냈다. 직선에서 속도를 꾸준히 높여가는, 속도를 높이는 맛도 있다. 고속도로에서도 흔들림 없이 잘 나간다. 곡선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대로 잘 반응한다. 다만 풍절음은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면 가격 대비 훌륭한 차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리틀 스타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 잘 빠졌다. 일단 헤드램프 형상이나 범퍼의 공기흡입구 모양 등이 눈에 들어온다. 비율적으로 보면 낮은 노즈, 높은 엉덩이, 롱 휠베이스, 쇼트 오버행 등이 특징이다. 실제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아반떼와 큰 차이는 없지만, 대시보드를 최대한 낮춰 시야를 더 보정했다.

각종 편의사양은 차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소비자 최선호 사양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량감지) △운전자 주의 경고(DAW)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 경고(BCW) 등을 적용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AI 기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인 '키카오 II(아이)'를 적용했고, 급속충전 USB 단자,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도 탑재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동급 시장 정복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아반떼AD와 올 뉴 K3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올 뉴 K3를 추천하고 싶은 정도로 기본기에 충실한 차다. 다만 아반떼AD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khlee@



막 달려도 리터당 17.5km...핸들링 깔끔

디젤 르노삼성 'SM6 1.5dCi'

5가지 운전 모드에 마사지 좌석 인상적

디젤 심장을 가진 르노삼성자동차의 2017년형 SM6 1.5 dCi를 시승해 봤다.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를 먹고 사는 데다, 가솔린 엔진보다 연비 면에서 우수한 심장을 가진 덕분에 실용성을 바탕에 둔 고객들이 선호하는 모델이다. 2016~2017년, SM6를 중형 세단의 '대세'로 만든 르노삼성은 과감히 차량에 디젤 엔진을 탑재해 다운사이징했다. 찬바람이 채가지 않은 2월 중순, 서울 도심출발 강원도 원주까지 질주해 봤다.



직임이 느껴졌다.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다. 1.5 dCi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110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힘을 낸다. 경쟁 모델 대비 배기량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토크가 생각보다 육중하지는 못한 느낌이다. 핸들링은 깔끔했다. 묵직함이 느껴졌지만 움직임이 간결했다. 르노삼성이 SM6를 출시하면서 강조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디젤 심장을 가진 만큼 연비는 합격점을 주기 충분했다. 시내·고속도로를 가리지 않는 데다,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리터당 17.5km의 연비가 측정됐다. 공인 복합 연비인 17.3km를 넘어선 것. 연비를 고려하는 운전자라면 에코모드를 선택해 운전할 것을 추천한다. 에코모드를 선택하면 냉·온풍기를 켜둘 때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온도를 서서히 낮춰 연비를 높여 주기 때문이다. 양병호 기자 dragonfly@

SM6 dCi의 외관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난해 언론계에서 선정된 '올해의 차'인 만큼 외모는 중후하면서 도 세련됐다. 디자인의 백미는 실내에서 찾을 수 있다. SM6 dCi의 실내 디자인은 안락함과 다양한 주행 감성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8.7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가시성이 뛰어났다. 이 차량은 스포츠, 노멀, 에코, 뉴트럴, 퍼스널 등 5가지 모드로 운전할 수 있는데, 모드 설정에 따라 실내 조명이 빨강·파랑·초록·보라색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파워트레인의 세팅도 달라져 기분 따라 다른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운전석과 동승자석에 앉아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다.

차량에 탑승해 본격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봤다. 작은 미동보다는 묵직한 풋워크를 발휘해야 차량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귀여운 외모에 넘치는 힘, 반전 매력

전기 쉐보레 '볼트 EV'

1회 충전 시 383km...테슬라 모델3 이상

곡선 위주의 동급동급한 외관은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볼트 EV를 처음 본 순간 '딩지 켜진 스파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크로스오버 차량(CUV)으로 해치백과 SUV의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차에 탑승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아닌 디지털 계기판이었다. 필요한 정보만 담으려는 듯 계기판에는 현재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 평균연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됐다.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전비가 'kwh/100km'로 표시된다는 점이 새삼 인상적이었다. 운전석에 탑승해 내부를 살펴봤다. 내부 공간은 준중형 세단 이상으로 여유로운 느낌이었다. 볼트 EV의 전고는 1610mm다. 180cm의 성인 남성이 착석해도 머리 위에 공간이 10cm 이상 남았다. 차의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인 휠베이스는 2600mm이다. 일반적인 준중형차의 휠베이스 길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약간의 불편함은 느꼈지만 비좁지는 않았다.



차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소 높은 경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뿐이 아니라 자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정속성은 저속 주행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 시에도 유지됐다. 시속 100km를 넘어서자 풍절음과 함께 차체의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내연기관차와 같은 엔진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뛰어난 지구력은 볼트EV의 두 번째 매력이다. 전기차의 핵심 이슈는 충전이고, 이것은 곧 항속 거리(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뜻한다. 볼트EV는 1회 충전으로 383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테슬라의 모델3보다는 30km 이상 더 갈 수 있다.

이제 서울에서 대구까지(약 288km) 충전 없이 이동 가능한 수준이다. 볼트EV 운전자는 차가 도로가 운데서 멈춰 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2017.11.29~2018.11.14)

KYOBŌ 교보증권

스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업종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핫팩스, 영풍문고, 반디엔터테인먼트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 할인
-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 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총축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블리오’가 알려주는 투자상품... “누구든 收益 낼 수 있어요”

(로보어드바이저)

벤처 돌직구

천영록 두물머리 대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식과 가상화폐 등 가격 변동 위험이 큰 자산에 투자가 쏠리고 있다. 더 큰 수익을 좇아 위험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률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다. 천영록 두물머리 대표는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대신 수익성이 좋은 투자 상품을 통해 많은 보통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는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블리오(Boolio)’로 그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보(robo)와 자문(advisor)의 합성어로, 로봇이 투자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일반 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블리오는 작년 한 해 13%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회사 자기자본을 가지고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트레이너로 6년여간 일하면서 수익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도제식 문화와 성과주

부자들에게 맞춰진 재무설계 회의감 금융-IT 접목한 로봇 서비스 창업 일반인 투자 수익 창출 기회 제공

의에 회의를 느낀 천 대표는 2014년 34세의 나이에 과감히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같은 금융 분야지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하는 만큼 신대륙을 개척하는 ‘콜롬버스’의 심정으로 읍소하다시피 주변에 있는 데이터 공학자, 개발자 등 인재를 끌어모았다. 회사명인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인 양수리의 순우리말이다. ‘융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회사명처럼 금융과 IT를 접목하면 상위 1%만이 아닌 다수의 중산층들도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 로봇 어드바이저 사업은 어떻게 착안하게 됐나?

“파생상품 트레이너로 금융상품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동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기계의 정확도와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이 조합됐을 때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과학적인 기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 기술을 연마한 바둑기사가 바둑을 잘 두는 것처럼 훈련된 직관에 따른 투자 노하우를 전파해주면 대중들도 충분히 돈을 버는 투자



천영록 두물머리 대표가 서울 여의도 63빌딩 드림플러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우리나라 재무설계사들은 대부분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에만 집중할 뿐, 일반인을 위한 보편적 자산관리·운영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다. 시간과 노력 대비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조차 아직까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시스템을 비즈니스화해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데 중산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고 싶었다. 전문 자산관리인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또 잘 모르는 펀드 상

품에 현혹되지 않고도 일정 수익률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큰 그림까지 그렸다.

최근엔 오히려 전화나 대면 상담보다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상담을 더 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졌다. 또 챗봇은 기존의 웹이나 모바일 환경보다 한층 맞춤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로봇을 합쳐 다수의 대중에게 PB(Private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솔루션은 여기서 착안됐다.”

- 블리오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월 수익률은 어떤가?

“20만 원 정도의 연회비만 내면 공격적 투자, 안정적 투자, 그 중간 정도, 이 세 가지 투자 성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 전략을 제시해준다. 고객 스스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주식형 펀드 투자 위주의 어드바이스가 담긴 30여 페이지의 리포트를 10분만 읽으면 어떤 금융상품을 사고 팔아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블리오의 월 1회 투자상품이 교체되므로 환매수수료가 없거나 선취·후취 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선택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다. 다행히 작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한 달을 제외한 11개월 동안 월 평균 10% 이상의 수익이 났다.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14%까지 찍었다. 당초 8% 수준의 수익률에 4개월은 최소 손실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빚나간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올해는 평균 13%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유료 고객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한 달에 200명 정도 신규 고객을 유치해 연말까지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엔 로보어드바이저 온라인 퇴직연금 관리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퇴직연금 투자를 유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많은 퇴직

연회비 20만원 내면 맞춤형 전략 제시 환매 수수료 적은 상품 선택 부담 줄여 작년 11개월간 평균 10% 이상 수익

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데 퇴직연금은 너무 멀리 있는 돈, 또 안전하게 지키기만 하는 돈이라는 생각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 중 80%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치중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포트폴리오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부터 우리도 퇴직연금을 스스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블리오의 서비스를 퇴직연금 영역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최고의 인재는 창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사회에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창업한 후 겪어는 안 된다. 20대 창업이 위험한 이유다. 명함 만드는 법, 인사하는 법 등 사회생활 초기 2-3년간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모른 채 창업한다면 발전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계에서 10년 전후의 경력과 전문성을 쌓으면 30대 중반 정도에 창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기자가 써보니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전조시간 절반 줄여 늦잠 많은 직장인도 머리 감고 출근 가능

성적이 급한 기자는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드라이어로 말리는 시간을 잔뜩하게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도 강력한 모터가 장착돼 단 시간에 모발을 건조할 수 있다는 모 브랜드의 제품을 이용 중이다. 강력한 열풍에 머리카락을 말리다 보니 염색을 자주하는 머리카락이 아침해마다 태풍을 맞은 것처럼 부스스한 상태로 출근하곤 한다. 삼겹살을 자주 먹지 않았다면 아마 오래전에 개털(?)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차처럼 출근 시간은 이른데 늦잠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고려해봐야 할 제품이 있다. 다이슨이 만든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다. 50만 원대를 넘나드는 약령 높은 가격대와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먼저 입소문을 탔지만, 보름 정도 사용해본 결과 제품의 성능이 소문 못지않았다.

슈퍼소닉 드라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람의 질’이다. 너무 강하지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정제된 바람’이 일반 드라이어보다 2-3배 빠른



‘V9모터’로 공기유입 후 제트기류 생성 강하거나 뜨겁지 않은 최적의 바람 방출 세 가지 노즐타입 따라 스타일 연출 가능

속도로 젖은 머리카락을 말려준다.

바람의 비밀은 모터에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V9모터로 공기를 유입한 후 다이슨만의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로 공기의 양을 3배 증폭시켜 제트기류를 만들어 낸다. 외관을 보면 다이슨의 모터는 다른 드라이어와는 달리 손잡이 부분에 있다. 손잡이 하단으로 공기를 흡입해 증폭시키는 원리다. 하단부를 돌리면 간단히 분리되므로 사용 후 쌓인 먼지를 청소할 수도 있다.

바람이 나오는 노즐은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납작하고 좁은 입구를 가진 스타일링 노즐, 조금 더 넓은 스무딩 노즐, 갈매기처럼 생긴 볼륨 디퓨저다. 가장 일반적인 스무딩 노즐은 머리를 천천히 건조시킬 때, 바람을 모아주는 스타일링 노즐은 부드러운 특정 부위에 웨이브나 볼륨을 넣고 싶을 때, 디퓨저 노즐은 바람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두피를 말려주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만들 때 좋다. 기자는 출근 시간에 쫓겨 노즐을 바꿔 가며 쓴 적은 거의 없었고 스무딩 노즐을 주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노즐과 헤드의 연결부는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 갖다 대기만 하면 돌리거나 조이지 않아도 부드럽게 탈착된다.

헤드 뒤쪽에 달린 두 버튼을 이용해 바람 세기는 3단계, 온도는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온도로 설정해도 다른 드라이어보다는 여과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체감상 그렇게 뜨겁지 않다. 모발에도 그만큼 무리가 덜 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싸지만 매일 쓰는 기계에 투자해 머릿결을 지키고 싶다면 구매할 만하다. 무엇보다 기자는 얇고 부스스한 모발 때문에 늘 정전기를 달고 다녔지만 다이슨을 쓴 후부터 오전 내내 머리가 차분해졌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중소 인사이트

大株주의 인사 청탁 논란

홈앤쇼핑-中企중앙회, 암묵적 밀월관계... “터질 게 터졌다”

‘홈앤쇼핑’ 대주주 中企중앙회 임원 특정 응시자 거른 “잘 살펴봐 달라” 채용공고 없던 항목서 가산점 특혜 강남훈 대표 해임에 정부 외압 의혹도



중소기업 전문 TV 홈쇼핑 ‘홈앤쇼핑’이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의 역학 관계상 태생부터 지적됐던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인사청탁을 들어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행사 일견되면서 이사회에서 강 대표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비리가 많다고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터질 게 터진 거죠.”

최근 만난 홈앤쇼핑 직원의 낯두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사청탁과 면제점 사업 배임 의혹, 신사옥 건설 관련 의혹 등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홈앤쇼핑.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채용비리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홈앤쇼핑 공채 과정에 개입해 일부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

은 청탁을 채용 과정에 반영했다는 것. 부정 채용된 10명은 1기 3명, 2기 7명이다. 이들은 애초 서류전형 단계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으나 ‘중소기업 우대’와 ‘인사조정’ 항목으로 가점 10~20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홈앤쇼핑은 1기 채용에서는 채용공고 당시 공지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 가점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청탁 대상자에게 적용했다. 2기 채용에서는 ‘중소기업 우대’ 항목은 사전 공지했으나 ‘인사조정’ 가점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켰다. 이들 항목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공지되지 않았고, 명확한 심사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없었다. 명백한 특혜다. 공채 2기의 경우 27명 모집에 3718명이 지원해 경쟁률 137.7대 1을 기록했는데 지원자를 우려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 채용 대상자 중 6명에 대해 중기중앙회 임원들의 사전 청탁이 있었다. 끊임없이 지적됐던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의 유착이 실제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중기중앙회 전·현직 임원을 아버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점 20점을 받고 턱걸이로 합격한 응시자도 있었다. 3명은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를 거치는 특혜를 받아 결국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대표는 “지인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인사 재량권 범위에서 가점을 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태가 커지자 홈앤쇼핑의 일부 사외이사 21일 강남훈 현 대표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13일 사외이사 3명이 대표 해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1일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임을 요청한 3명의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농협 추천 사외이사다. 홈앤쇼핑의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이사회에 4명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이사회를 통해 대표직을 박탈할 수는 있지만 최종 승인은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한편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와의 밀월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강 대표의 해임에 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돼 분사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중기부가 강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정권 교체 이후 사퇴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해 2020년 5월까지가 임기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처음 선임됐으니 전 정권 인사로 낙인 찍혔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김병근 기자 nova@

의(업무방해)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과 당시 인사팀장 여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 채용시 기회를 부여하는 수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이 강 대표에게 특정 응시자를 거른하며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고 강 대표가 이 같

에이스침대 | 'LUNATO II' 침대

아름다움 갖춘 나만의 안식처

최근 SNS 등의 발달로 24시간 타인과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 진입하며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며 2018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자신만의 공간을 의미하는 '케렌시아(Querencia)'가 선정되기도 했다. '케렌시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영향으로 집을 안식처로 만드는 인테리어 아이템들의 인기도 동반 상승해 특히 휴식과 가장 밀접한 침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침대 브랜드 에이스침대는 고객 맞춤형 편안함을 제공해 침실을 안식처로 만들어줄 '루나토(LUNATO) II'와 '베나토(VENATO)-R' 침대를 추천한다. 침대는 침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한 아이템인 만큼 어떤 침실도 아늑하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는 프레임 선택이 중요하데, 두 제품 모두 통일감을 주는 마감과 세련된 컬러로 안정적인 침실 공간을 연출해 준다.



에이스침대 고급형 침대 'LUNATO II'. 사진제공 에이스침대

'루나토 II'는 에이스침대의 인기 모델 '루나토'에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의 오크진 컬러 우드 프레임 포인트를 더한 고급형 침대이다. 우드 프레임이 더해진 카멜브라운 헤드보드가 고급스럽고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볼륨감과 두께감 있는 머리판에 각도를 취 헤드보드에 기댔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독서나 영화감상 등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베나토-R'는 에이스침대의 베스트셀러 '베나토'의 라운드형 제품이다. 원목 물딩과 무늬목 조판기법으로 유니크함을 더했다. 머리판과 발판에 동일하게 들어간 무늬목 조판 기법은 통일감을 주며, 깊은 질감과 세련된 컬러의 원목 소재는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최근 '케렌시아' 트렌드에 맞춰 안락한 휴식과 인테리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트리스와 침대 디자인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에이스침대가 추천하는 매트리스와 침대를 통해 일상에 지친 피로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웨이 | 트리플 체인지 매트리스 2종

피부에 닿는 토퍼 '무상교체'...늘 새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혼수를 미리 장만하려는 신혼부부의 발걸음이 바쁘다. 혼수용품 중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트리스다. 매트리스는 한 번 구매하면 보통 7~8년을 사용하고, 신혼방 인테리어의 핵심이기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선택해야 한다.

코웨이의 '트리플 체인지 매트리스 2종(CMQ-SL02, CMSS-SL02)'은 렌탈 제도를 이용한 합리적인 가격 체계와 위생 관리 서비스 제공, 무엇보다 토퍼 교체라는 차별성을 앞세워 신혼부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토퍼는 신체가 직접 닿는 매트리스 상단 부분으로, 손으로 눌렀을 때 느껴지는 단단하고 폭신한 정도를 결정하며, 몸의 압력을 분산시켜 편안한 수면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제품의 최상단에

탑재된 위생토퍼는 니트 소재로 만들어져 사용자에게 포근한 느낌을 전달한다. 탑부착도 간편해 사용하는 동안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렌탈 기간 중 18개월, 54개월 차(6년 렌탈 기준)에 새것으로 교체해 주기 때문에 위생은 걱정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고민을 덜어준다.

위생토퍼 바로 아래에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경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토퍼가 탑재돼 있다. 맞춤토퍼는 단단한 하드 타입과 부드러운 미디엄 타입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렌탈 기간 중 3년에 한 번 새것으로 교체가 가능해 처음 샀을 때의 탄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약 800여 개의 촘촘한 독립 스프링이 사용자의 신체 굴곡에 맞춰 최적의 수면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도 장점이다.



코웨이의 '트리플 체인지 매트리스'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생토퍼·맞춤토퍼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사진제공 코웨이

한편 코웨이는 트리플 체인지 매트리스를 렌탈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4개월에 한 번씩 코웨이 위생관리 전문가 휴게어닥터 방문을 통한 '7단계 매트리스 케어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대리바트 | '안식처' 콘셉트 S/S 신제품

안락한 해밀턴 소파... '꿀잠' 송중기 침대

현대리바트는 올해 S/S 신제품 콘셉트로 '안식처'를 선택했다. 최근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잘 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 자신만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리바트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공간별 소비자 수요를 분석해 최고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주방의 경우 우드슬랩 디자인의 세리프 식탁이 제격이다. 우드슬랩이란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공법으로, 천연 원목의 무늬결과 자연스러운 측면 라인이 특징인 제품을 말한다. 원목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크랙이나 변형이 심하고 가격대도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세리프는 이러한 원목의 단점을 보완했다. 북미산 천연 월넛 무늬목이 사용된 상판은 자연 그대로의

유기, 무늬결을 노출해 깊고 진한 주방 분위기를 연출한다.

침실은 집 안에서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특히 신혼부부들은 부부만 사용하는 침실을 호텔 분위기로 연출하기를 원한다. 리바트는 일명 '송중기 침대'로 불리는 코펜하겐 침대를 내놴다. 부티크 호텔 침대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원목 디테일이 들어간 세로 컬러리 확장 협탁 옵션을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조명은 상부 터치센서로 불빛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편의성을 더했다.

또 다양한 모듈이 있어 배치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킹 사이즈보다 큰 '라지킹' 사이즈와 '슈퍼싱글' 사이즈를 매치하면 패밀리침대로 사용할 수 있고, 슈퍼싱글 사이즈 두 개를 배치해 호텔 트윈룸처럼 연출할 수도 있다. 온 가족이 TV 시청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공동 공간이자 각



'송중기 침대'로 불리는 코펜하겐 침대. 사진제공 현대리바트

자 노트북, 독서 등 개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 거실에는 '웨스트엘름 해밀턴' 소파가 어울린다. 1950년대 스타일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해밀턴 소파는 최고급 톱 그레인 가죽으로 제작됐다. 천연 가죽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에날린 마감에 해 세월이 흐를수록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이 더해지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한화L&C | 가심비 인테리어 상품

착한 가격에 디자인·성능 소비자 저격

집이 주거 공간을 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에 집을 보다 안락하고, 지친 몸을 위로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소비 트렌드로 '가심비(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가성비를 넘어 심리적 만족까지 취할 수 있는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가격까지 안정적인 인테리어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한화L&C는 인테리어 필름 '보닥'과 차세대 마루 '마루&'으로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인테리어 필름은 필름의 뒷면에 특수점착제가 처리된 제품으로 시공 작업이 간편하고 작업 기간 단축에 효과적인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다. 인테리어 필름을 오래된 가구나 집 구석구석에 시공하면 새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비용도 새 가구로 교

체하는 비용의 5분의 1 수준으로, 시공 작업이 간편하고 작업 기간도 짧아 적은 비용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한화L&C의 인테리어 필름 '보닥'은 내추럴 서피스(대리석, 인조가죽, 질석, 특수형) 시리즈, 고급스러운 나무의 질감을 표현한 우드 시리즈, 심플한 단색과 메탈의 베이직 시리즈가 있다.

한화L&C의 '마루&'은 유럽의 고위험성 물질 시험을 통과한 표면재를 사용했다. 마루&은 친환경성에 디자인을 가미해 차별화를 꾀했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기존 마루 바닥재에 변화를 주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본적인 목 무늬 우드 패턴 외에 대리석 패턴을 포함해 총 18개의 패턴을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치수 안정성을 삽입해 기존 마루의 약점



한화L&C 친환경 마루 신제품 '마루&' MIX 트렌디 메종. 사진제공 한화L&C

으로 좁히는 수축 팽창으로 인한 제품 변형이 거의 없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기존 마루 제품 대비 보행감이 우수하며 한층 포근하고 질감 또한 부드러워 출시 이후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사무공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마트에 없는 물
TV광고 없는 정수기
영업사원 없는 회사

“물 소문만으로 33년”

오직, 물 - 한우물

물맛부터 다른 이종전기분해방식의 전혜 약알칼리수 - 한우물

<p>최첨단 전자식 냉온 정수기 ▶HAN-CH3000S</p> <p>특성 정수, 온수/냉수, 화이트</p> <p> 정수량 4,000L의 뛰어난 필터성능 터치 한 번으로 내맘대로 물량 조절 세정기능을 통한 최상의 전기분해 유지</p>	<p>따뜻한 물도 바로 직수형 온정수기 ▶HAN-EP5100</p> <p>특성 정수, 온수, 미온수/색상 그레이, 레드</p> <p> 3단계 온수 기능으로 용도에 맞게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도 슬림 스마트한 자동세정 기능</p>	<p>간편하게 바로 직수형 정수기 ▶HAN-EP5000</p> <p>특성 정수/색상 레드, 스카이블루</p> <p> 작고 이쁜한 사이즈에 성능은 그대로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도 슬림 스마트한 자동세정 기능</p>
---	--	---



건강한 물, 한우물 「나처럼」 무료 시음 이벤트!

무료 시음을 신청하시면 건강한 약알칼리 음료 나처럼 500ml 4병을 택배를 통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고객센터 1588-4804로 연락주세요.



매각 막바지 'STX엔진' 69%·줄기세포株 '네이처셀' 47% ↑

지난 주(3월 12~16일) 코스피지수는 2493.97포인트로 마감했다. 직전 주말(2459.45포인트)보다 1.40%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지수도 모처럼 2490선을 회복했다. 남북 대화 분위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완화된 것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배경이 됐다. 외국인은 785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3370억 원, 개인은 2973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베스트&워스트 3월 12~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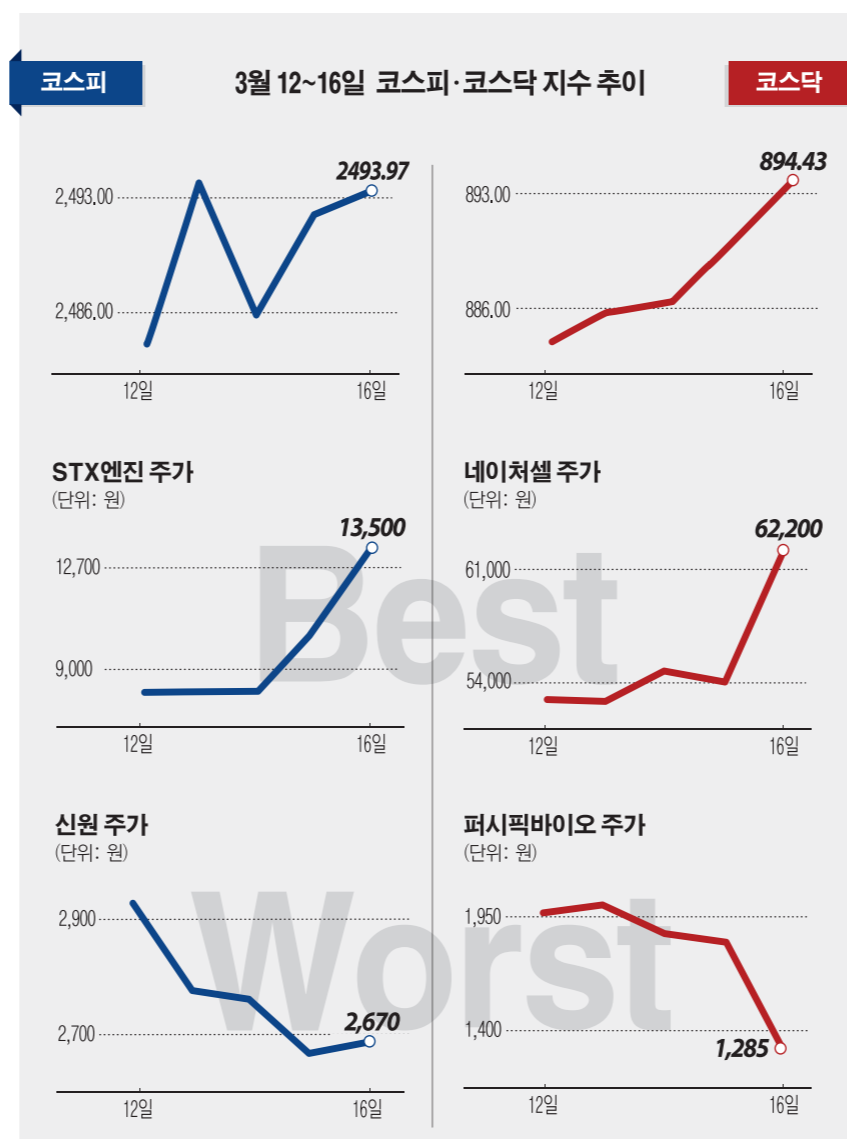
코스닥지수는 전주(865.80포인트) 대비 3.31% 상승한 894.43포인트로 마감했다. 5거래일 모두 상승세로 마감하며 미국 국제금리 급등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달 2일(종가 899.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주목된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하며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55억 원과 163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은 197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매각 막바지 STX엔진, 68.96% 급등 = 한 주간 코스피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STX엔진이었다. STX엔진의 16일 종가는 1만3500원으로 한 주간 68.96% 뛰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매각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STX엔진은 자산관리 전문업체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인수 합병(M&A) 본격화를 1825억 원에 체결한 상태다. 유암코는 STX엔진 인수금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이달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암코는 STX엔진을 인수한 뒤 오랜 기간 보유하며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의 분할과 매각 결정을 알린 두산엔진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이번 매각은 두산엔진을 인적분할해 두산그룹 자산을 보유한 투자부문(신설회사)은 두산중공업에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존속회사)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지분만 사모펀드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권가에서는 두산엔진의 주주들이 투자회사와 두산중공업 합병의 대가로 두산중공업의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분할이 주가에 유리한 이슈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 코스피 상승률 상위에는 △유유제약 (43.75%) △세원셀론텍 (31.87%) △아비스타(28.63%) △코스모신소재 (21.86%) △에스씨엔지너어링 (19.73%) △국동(18.72%) 등이 이름을 올렸다.

◇'너무 올랐나' 남북경협주 차익 실현에 하락 = 지난주 하락 상위 종목은 보



줄기세포 치료 원조 '파미셀' 건강변 치료제 기대감 44% 쏙 南北 경협株, 남광토건 33% 오르고 신원·인디에프는 내려 분할·매각 두산엔진 상승세... M&A 가능성 ING생명 하락

보였다. 이 회사의 건강변 치료제 '셀그림-리버'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파미셀은 셀그림-리버의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으면 국내 5호 줄기세포 치료제가 되는 동시에 파미셀은 2개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파는 국내 유일의 회사가 된다.

남·북한 경제협력 수혜 종목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여전히 분주했다. 지난주 가장 큰 수혜주는 과거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이력을 가진 건설업체 남광토건(32.73%)이었다. 앞으로 두 달 사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남광토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다. 향후 남·북한 철도 연결,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면 기업의 약재가 주가에 반영된 급락보다는 단기간 급등 이후 차익실현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낙폭 자체도 크지 않았다.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대표적 남북경협 관련주로 꼽히는 섬유업체 신원이었다. 다만 하락폭은 9.03%로 비교적 작았다. 이 회사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라는 점에서 직전 한 주간 급등한 뒤 피로감을 반영해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목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남북경협주 가운데 인디에프(-8.64%), 남해화학(-7.17%) 등이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랐다.

약재에 따른 주가하락 사례로는 M&A 가능성이 거론된 아이엔지(ING)생명 정도가 눈에 띈다. 아이엔지생명은 최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을 전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간 주가를 떠받치던 배당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 총액	3월 9일	3월 16일	증가	증률
STX엔진	311	7,990	13,500	68.96	8.62
파미셀	532	6,300	9,100	44.44	7.05
유유제약	117	12,800	18,400	43.75	3.39
남광토건	108	8,250	10,950	32.73	3.98
세원셀론텍	294	3,655	4,820	31.87	8.71
아비스타	118	2,550	3,280	28.63	11.41
두산엔진	396	4,565	5,700	24.86	5.45
코스모신소재	245	12,350	15,050	21.86	17.73
에스씨엔지너어링	48	3,675	4,400	19.73	5.34
국동	63	4,060	4,820	18.72	4.61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 총액	3월 9일	3월 16일	감소	감률
신원	184	2,935	2,670	-9.03	-3.06
삼일제약	115	22,900	20,900	-8.73	-3.81
경동도시가스	184	42,750	39,050	-8.65	-20.23
인디에프	118	2,200	2,010	-8.64	-38.79
무림페이퍼	136	3,580	3,280	-8.38	-23.12
아이엔지생명	3,772	50,100	46,000	-8.18	-16.33
한국카본	300	7,380	6,820	-7.59	-10.42
진양화학	31	2,835	2,620	-7.58	-26.77
인터하이	106	3,845	3,560	-7.41	-19.25
남해화학	611	13,250	12,300	-7.17	-5.39

(시총·십억 원, 증가·원, 주가증감률:%)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 총액	3월 9일	3월 16일	증가	증률
네이처셀	3,293	42,250	62,200	47.22	11.19
에이치엘비생명과학	360	9,350	13,500	44.39	4.76
CSA 코스믹	174	6,140	8,830	43.81	7.13
닉스테크	122	5,370	7,600	41.53	7.71
수성	55	4,125	5,820	41.09	9.96
아리온	146	1,270	1,735	36.61	28.82
제노포커스	274	22,500	30,100	33.78	14.99
엔지캄생명과학	838	83,300	109,900	31.93	38.34
우수AMS	94	2,940	3,800	29.25	9.98
켄테크놀로지	72	4,890	6,320	29.24	6.00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 총액	3월 9일	3월 16일	감소	감률
퍼시픽바이오	56	1,880	1,285	-31.65	-16.83
와이오엠	55	6,150	4,750	-22.76	-37.04
EMW	126	5,000	4,015	-19.70	-39.40
유테크	68	6,530	5,380	-17.61	-26.97
인트로메디	104	16,750	14,400	-14.03	-20.51
태광	339	14,750	12,800	-13.22	-18.38
동일철강	32	4,920	4,295	-12.70	-25.80
퓨처스트림네트웍스	244	3,320	2,900	-12.65	-36.89
엑토소프트	234	23,500	20,650	-12.13	-51.39
투비소프트	153	9,050	7,960	-12.04	-13.14

※ 자료:에프엔케이

◇성장주 내달린 코스닥- 네이처셀 47.22% 급등 = 일주일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줄기세포 관련 종목인 네이처셀이었다. 직전 주말 4만2250원이었던 네이처셀의 16일 종가는 6만2200원으로 한 주간 47.22% 뛰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회사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난치병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영국 파인셀타임스톡익스체인지(FITSE)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도 수급 측면의 호재로 작용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상승률도 한 주간 44.39%에 달했다. 12일 특수관계사인 라이프리버 지분 97.95%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온 뒤 주가

약 개발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41.53% 상승했다. 자동차 엔진용 부품업체 우수AMS 또한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가능성이 언급된 영향으로 일주일 전보다 주가가 29.25% 올랐다.

이밖에 △CSA코스믹(43.81%) △수성(41.09%) △아리온(36.61%) △켄테크놀로지(29.24%) 등이 코스닥시장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퍼시픽바이오-와이오엠 공매도 유탄에 급락 =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퍼시픽바이오(-31.65%)였다. 공매도거래가 급증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퍼시픽바이오의 공매도 수량은 3만4455주로 이전 평균 수준보다 급증했고, 같은 날 사인 라이프리버 지분 97.95%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온 뒤 주가

특수관계사 지분 양수 결정 '에이치엘비생명과학' 44% 급등 최대주주 변경·사업다각화 알린 보안업체 '닉스테크' 42% ↑ 공매도 유탄 맞은 '퍼시픽바이오' 32%·'와이오엠' 23% 폭

가 크게 뛰었다. 라이프리버는 바이오인공관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해 세포치료제, 지혈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한 차례 라이프리버 인수를 추진하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 이번에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법률적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바이오 업체 제노포커스 역시 신약 개발 관련 기대감으로 높은 상승률(33.78%)을 기록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 효소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 평가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5년 제노포커스 상장 당시 기대했던 라이프이즈의 매출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대주주 변경, 사업다각화 등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가가 급등한 곳도 있었다. 정보보안업체 닉스테크의 경우, 이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바이오 신

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필름제조업체 와이오엠 역시 비슷했다. 이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달 14일 이후 3거래일 연속 급락하며 한 주간 29.24% 떨어졌다.

12월 결산법인의 2017사업연도 결산 시즌인 만큼 실적 부진이 주가를 끌어내린 사례도 속출했다. EMW(-70%), 유테크(-17.61%), 태광(-13.22%), 투비소프트(-12.04%)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주중 발표한 지난해 이들 업체의 연결기준 실적을 보면 EMW는 33억 원, 유테크는 72억 원, 태광은 162억 원, 투비소프트는 2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에서는 △인트로메딕(-14.03%) △태광(-13.22%) △동일철강(-12.70%) △퓨처스트림네트웍스(-12.65%) △엑토소프트(-12.13%) 등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카드업계 1등기업 신한카드가 공개하는 금융의 미래

- 2,200만 고객 데이터라는 압도적 빅데이터
- 업계 최초로 설립한 빅데이터센터
- IoT의 시작점 카넥티드 카 커머스
- 생체인증 핀테크로 열리는 카드 없는 사회
-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예방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1등 기업은 없다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존재할 뿐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사용자 개개인에 딱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깊이가 다른 혁신의 철학 'DEEP'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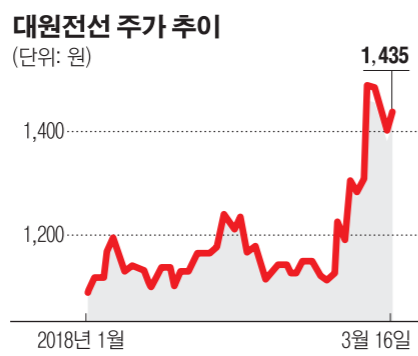
신한카드 지움 | 304쪽 | 14,000원

대원전선 “러, 천연가스 사업 적극 참여”

전선 케이블 소재품 러시아 수출 위한 품질 인증 획득

대원전선이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러시아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증을 전선 케이블 전 품목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원전선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TRCU(Test Regulation of Custom Union)와 GOST(GOSSTANDARD)를 획득했다. 대원전선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연구개발을 거쳐 러시아 및 극동지역 수주 증대를 위해 TRCU 인증을 획득했다. TRCU와 GOST 인증은 우리나라의 KS 인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제품은 이들 인증이 필요하다.



TRC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이 결성한 유라시아 관세동맹 EACU를 시작으로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 EEU에서 발표한 통합 인증제도

다. GOST 인증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으로 러시아 정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을 확립하면서 GOST 인증이 TRCU 인증으로 교체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MV(중전압) 전선 계열은 GOST 인증이 필요하고, 이외의 제품은 TRCU 인증이 필요하다”며 “러시아 및 극동지역 고객사가 요구하는 대다수 품목에서 이들 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인증을 바탕으로 2016년 가스플랜트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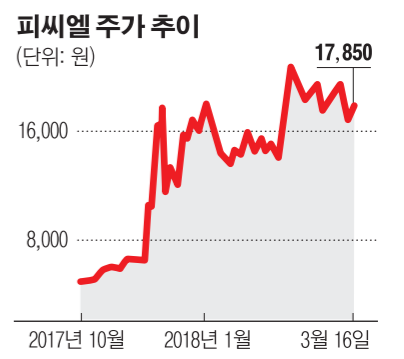
지만, 수주는 하지 못했다”라며 “이후에도 작지만 소소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찰 공고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전선은 생활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의 공급과 정보통신망 구축,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각종 기계 등에 들어가는 전력 및 통신케이블(광케이블 포함)을 주력으로 각종 전선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익원을 들여 TRCU와 GOST 인증을 전 품목에 걸쳐 취득하며, 천연가스 프로젝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다중 암 진단 키트 제조기업 ‘피씨엘’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해 R&D센터 확장

머서SG Cap기술Hi 시리즈 발표 유럽통합 인증·식약처 허가 추진



피씨엘이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 및 집중을 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R&D 센터를 확장한다.

19일 피씨엘 관계자는 “R&D 확대 및 집중을 위한 실험장비 확충과 연구 인력 증원으로 확장 이전하게 됐다”며 “기존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옥은 생산시설로 활용하고, 문정동 사옥은 전문 R&D 센터로 운영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직원 중 70%가 R&D 인력인 만큼 센터 확장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중 면역 진단 키트 제조 기업 피씨엘은 2008년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의 사업 목적으로 설립, 지난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중국, 대만, 벨기에, 프랑스 등 세계에서 인정받은 SG Cap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혈액 속에 있는 특정 질병의 바이오 마커를 고정화시킬 수 있는 원천 플랫폼 기술로 최대 64개 질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피씨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중 암 진단 키트 Ci-5는 간암과 췌장암,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5 종류

의 암을 1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다.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마치고 유럽통합 인증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에이즈, C형 간염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HI3-1 제품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피씨엘이 개발한 것으로 유럽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급성호흡기 감염병의 항원 기반 현장용 다중 질병 진단 키트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과제로도 선정된 이 회사는 미국 진출도 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미국 적십자 및 노바티스 출신 임원도 영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SG Cap기술과 Hi 시리즈를 발표할 수 있는 원천 플랫폼 기술로 개발을 논의 중”이라며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향후 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에이치엘비파워, 火電 댐퍼 기술 해외수출

인도 국영 전력장비사 공급 계약 4개 댐퍼 기술 이전료 100만 달러 10년간 매출 2.5% 러닝 로열티



김종원(앞줄 오른쪽) 에이치엘비 파워 대표와 BHEL 수부리타 비스와스 R&D 이사가 화력발전소용 댐퍼 관련 기술 수출계약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이치엘비파워

에이치엘비파워가 보유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용 댐퍼 관련 기술을 해외 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6일 에이치엘비파워가 인도 국영 전력장비업체 BHEL(Bharat Heavy Electricals Limited)과 100만 달러의 기술 이전료 및 향후 10년간 관련 설비 매출의 2.5%를 러닝 로열티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치엘비파워는 향후 10년간 BHEL

의 영업력을 기반으로 설비 투자 없는 수익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기술 수출계

약에 이어 다른 기술의 수출계약도 추가로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이전을 받는 BHEL은 4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도 최대 발전플랜트 제조사로 인도 내 시장 점유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원 에이치엘비파워 대표는 “현재 인도의 화력발전 현대화 및 발전설비 확충을 주도하고 있는 BHEL은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설비 현대화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대한 니즈가 강했다. 에이치엘비파워의 기술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에이치엘비파워의 기술력을 한 번 더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10년간 로열티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은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4개의 댐퍼 모델에 한정된다”며 “복합화력발전소용 다이버터 댐퍼와 원자력발전소용 댐퍼에 관한 기술 이전도 추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3월 19일, 08:00, KST)

종목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1,029,000	-27,000	(2.6%▼)
리플	720	22	(3.2%▲)
라이트코인	169,600	-1,300	(0.8%▼)
대시	425,000	-2,000	(0.5%▼)
모넨로	226,900	9,000	(4.1%▲)
비트코인골드	62,000	-2,300	(3.6%▼)
이더리움 클래식	18,510	370	(2.0%▲)
퀀텀	14,750	-260	(1.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에스에너지, 호주 태양광 개발사업 본격 시동

주요 공기업과 20MW 규모 전력수급계약... 국내 업체 첫 진출

태양광 전문기업 에스에너지는 호주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태양광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에스에너지는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인 헬리아데스(Heliades)사와 공동 출자 방식으로 워딩가 솔라 파워(Wodonga Solar Power)를 설립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빅토리아주 워딩가시에 5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회사는 호주의 주요 공공기업과 전체 발전용량 중 20메가와트(MW)규모의 전력수급계약(Commercial PPA)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역 용량

은 최근 빅토리아 주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말 완공될 예정이며, 호주 빅토리아 주 북동쪽에 위치한 대단위 농업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으로서 호주 내 자체 개발 사업 진출의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형 커머셜(Commercial) PPA 조달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스에너지는 향후 공공기업과의 협력

을 확대해 호주 태양광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에스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지 확보 및 인허가, PPA, 금융 조달을 비롯한 사업 전반을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직접 수행함으로써 호주 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일본, 칠레 시장에 이어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해외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hura@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센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익숙한 듯,
하지만 새롭게
쏘나타를 바꾸다.



2018 쏘나타 뉴라이즈 출시

고급형 사양을 합리적 가격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이스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모아 선택의 고민까지 해결하는 스마트 스페셜

※ 자세한 사양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2.0 CVT(16") : 복합 12,3km/ℓ (도시 : 10,7km/ℓ, 고속도로 : 15,0km/ℓ) | CO₂ 배출량 : 136g/km | 배기량 : 1,999cc | 공차중량 : 1,450kg | 자동6단(3등급) ▶ 1.7e-VGT_7단DCT(16") : 복합 16,1km/ℓ (도시 : 15,0km/ℓ, 고속도로 : 17,8km/ℓ) | CO₂ 배출량 : 116g/km | 배기량 : 1,685cc | 공차중량 : 1,515kg | 7단DCT(1등급) ▶ 1.6T-GDI_7단DCT(16") : 복합 13,0km/ℓ (도시 : 11,5km/ℓ, 고속도로 : 15,2km/ℓ) | CO₂ 배출량 : 126g/km | 배기량 : 1,591cc | 공차중량 : 1,465kg | 7단 DCT(3등급) ▶ 2.0T-GDI_7단DCT(18") : 복합 10,7km/ℓ (도시 : 9,2km/ℓ, 고속도로 : 13,1km/ℓ) | CO₂ 배출량 : 156g/km | 배기량 : 1,998cc | 공차중량 : 1,565kg | 자동8단(4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